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BULLETIN NO. **107**



TAIHE

CHINESE FINE DI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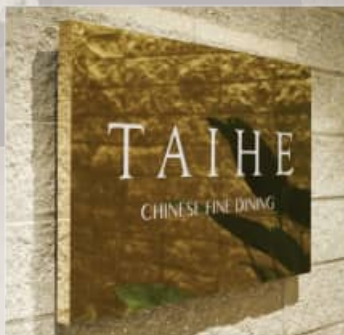
60년 전통의 태화관(泰和館)의 부활 특급호텔 셰프의 만남 타이허(泰和)



60년전, 의정부에서 개업한 泰和館(태화관)이 40년 경력의 특급호텔 출신 대가와 만나
2017년 11월 1일 강남 역삼동에서 "타이허(泰和)" 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습니다.

중국 본토 최고의 맛과 감성이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타이허(泰和)"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편안하고 품격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대가의 자부심을 담아 최고의 식재료만을 엄선하여 완성되는
정통 중식의 향연을 "타이허(泰和)"에서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매장정보 | Restaurant Information

영업시간 11:30 ~ 15:00 / 저녁 17:30 ~ 22:00
전화번호 02-508-3800 (B2, 80석 단체석 완비, 발렛파킹 가능)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41, 태화빌딩 B1, B2 (역삼동 628-8)

대중교통 | Public Transportation

지 하 철 2호선 역삼역 6번출구 또는 9호선 언주역 7번 출구 (도보 5분)
버 스 147번, 463번, 4211번, 9600번

타이허 대표이사 장치평 (경영79)

LS, 세계의 미래를 스마트에너지로 밝힙니다

LS의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이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으로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이끌어 갑니다

DT 솔루션
(Digital Transformation Solution)

스마트공장시스템
(Smart Factory & FEMS)

스마트빌딩시스템
(BEMS)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마이크로 그리드
(Micro Grid)

태양광 발전
원스탑 솔루션
(One Stop Solution)

FUTURING SMART ENERGY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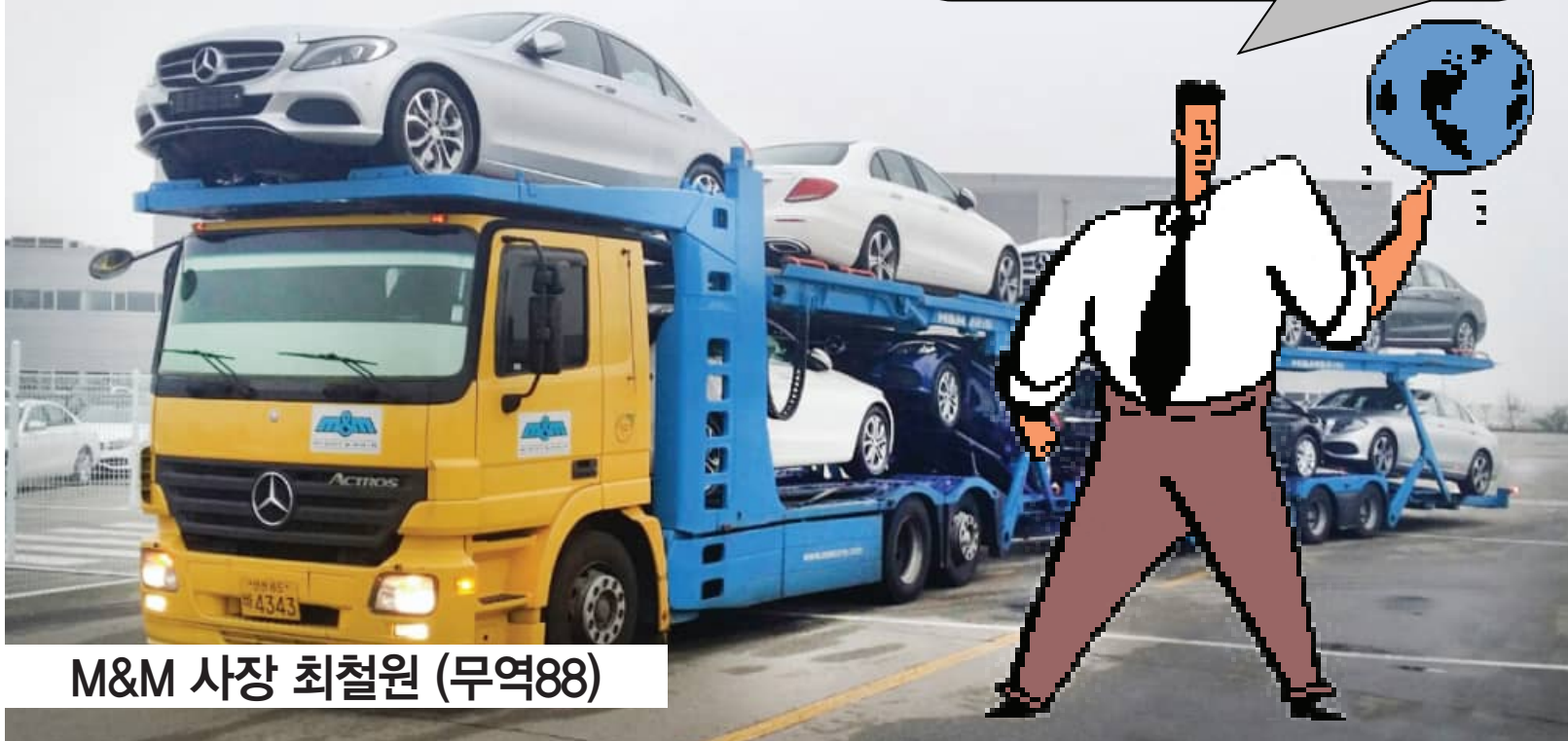
(주)LS | LS전선 | LS산전 | LS-Nikko동제련 | LS엠트론 | LS글로벌 | LS아이앤디 | LS빌드윈 | LS메탈 | LS사우타 | LS메카피온 | LS오토모티브 | LS네트웍스

LS그룹 회장 구자열 (경영72)



감사합니다

Anytime
Anywhere
I will take you!



M&M 사장 최철원 (무역88)



MIGHT & MAIN(주)

www.mmcorp.com

만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국토부 허가 취득



자율주행, 그 이상의 기술 Drive with Technology Mando

만도는 '안전'에 있어 타협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우선으로
사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자동차,
더욱 안락하고 편안한 자동차,
사람의 마음까지 읽는 첨단 편의기능을 갖춘 꿈의 자동차 기술을 생각합니다.



자동긴급제동 시스템(AEB)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다



원격 전자동 주차 시스템(RSPA)
스마트폰으로 주차를 간편하게



고속도로주행지원 시스템(HDA)
고속도로에서 편안한 드라이빙



교차로 사고 예방 시스템(CTA)
교차로에서 안전한 주행



주식회사 만도

436-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1 Tel : 02. 6244. 2114 Fax : 02. 6244. 2997 www.mando.com

한라그룹 회장 정몽원 (경영74)

스스로학습이 희망이다

서로 다른 분야가 융합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스스로학습법은
아이가 좋아서, 쉬워서, 스스로 학습하게 하여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지닌
창의적 인재로 자라게 합니다.

스스로학습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스스로학습이 희망입니다.

JEI 재능교육

재능그룹 회장 박성훈 (상66)

삼양, 내일은 어디서 만날까요?

● samyang ●●
life's ingredients

삼양홀딩스 | 삼양사 | 삼양바이오팜 | 삼양패키징 | 삼남석유화학 | 삼양화성
삼양이노کم | 삼양화인테크놀로지 | KCI | 삼양에프앤비 | 삼양데이타시스템 | 삼양EP헝가리
삼양공정소료(상해)유한공사 | 삼양EP베트남 | 삼양바이오팜USA | 양영·수당재단

(주)삼양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김 윤 (경영72)

2019년 경영대학 교우회 주요 행사일정

*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행사명	장소
10월 24일(목) 18:30	하반기 상임이사회	타이허
11월 말	제2학기 장학증서수여식	L-P경영관
12월 5일(목) 18:20	제39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그랜드볼룸 5F)

제 39회 교우의 밤에 초대합니다

2019. **12.5** Thursday pm.18:2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5F)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 06_ 제9회 걷기대회
- 10_ 고대인상 수상 – 이상일(상학57)
- 11_ 명예교수 사은회
- 12_ 친선 골프대회
- 16_ 909행사
- 18_ 야구부후원금행사
- 20_ 94학번 홈커밍데이
- 22_ 2019 정기 고연전
- 28_ 추모의 글 – 故조익순 명예교수
- 30_ 회원동정
- 31_ 회원기부
- 32_ 인터뷰 – 여용동 809회장(82학번)
- 36_ 교수칼럼-김동기 명예교수
- 38_ 학번별 소식
- 55_ 회원기고
- 58_ 경영대 소식
- 60_ 회비납입명단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19 통권 제107호 Vol.29

발행일 2019년 9월 23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행인 정몽원
편집인 오성호
인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소 136-7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408호)
전화 02-922-3762
팩스 02-922-3763
이메일 kubsal@kubsal.or.kr
홈페이지 www.kubsal.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가격 3,000원

제9회 걷기대회



제 9 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KUBSA 걷/기/대/회

2019년 4월 27일 토요일 9시, 제9회 경영대학 교우회 걷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2011년 첫발을 내딛은 이 행사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장소를 변경하였으며, 180명으로 교우 참석을 확정하여 진행하였다.

정몽원(경영74)교우회장은 청명하고 좋은 날씨에 57~91학번 교우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즐겁게 교우들 간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교우들에게 다정한 인사말을 건넰었다.

행사는 경영본관 앞에서 집결하여 중앙도서관, 법학전문대학원, 인촌기념관, 화정체육관, 의대병원, 이과대, 공과대를 거쳐 다시 인문계캠퍼스로 돌아왔다. 민주광장 학생회관 앞에서 권오상(경영78)교우가 주도하여 몸을 풀어주기 운동을 하고 다시 출발하여 국제관, 본관 호상, 경영본관으로 돌아왔다. 마지막에는 경영대학 재학생 홍보대사의 안내에 따라 LG-POSCO관, 현대자동차관을 순회하였다.

특히 법대-화정체육관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라 등산하



는 느낌이었지만 교우들은 즐겁게 학교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재학시절을 추억하며 약 5km의 코스를 2시간에 걸쳐 걸었다. 캠퍼스 걷기를 완주하고 교우회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이번 행사의 흥을 이어갔다. 재학생들이 찾는 교우회관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와 가벼운 술을 곁들이며 선후배, 동기들과의 우애 깊은 자리를 기념하였다.

행사를 참석한 고학번 교우들은 학교를 졸업한지 40년 만에 다시 돌아와 철쭉이 활짝 핀 울긋불긋하고 아름다운 교

정을 걸으면서 그동안 변모한 학교교정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고 과거 재학시절이 생각나서 좋았다고 오늘 행사의 소감을 밝혔다.

행사전날까지 미세먼지와 비바람으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였으나 행사당일 쾌청하고 맑은 날씨 덕에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 **도움주신분!!**

**김평국 이사(경영89)
체코맥주 120칸**

**경영대학
에코물통,
보온물병 220개** ”



고대인상 수상



고대인상 수상

이상일 교우(상학57)

구자열 총교우회 회장(경영72)과 정진택 모교총장은 지난 5월 5일 오전 10시 30분 인촌기념관에서 '개교 114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고대인의 최고 명예인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은 이상일(상학57) 일진그룹 회장이 수상했다. 이상일 교우는 일진그룹을 창업하여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지대하다. 또한 LG-POSCO경영관, 현대차경영관, 모교 및 교우회장학금 등에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개교 100주년을 맞아 교정에 100그루의 소나무를 기증, 유학생을 위한 해외기숙사(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도 건립 기증하였다. 최근에는 경영대 Start-up연구원에 「일진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증하여 후배들에게 벤처의 꿈을 심어 주었다. 이상일 교우는 결단과 용기, 헌신의 리더십으로 사회에 소외받는 이웃들을 배려한 기부 및 참여 등에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발전에 공헌하였다.

경력

- 1963. 02 ~ 1973. 12 한국전력 주식회사
- 1974. 01 ~ 1982. 04 일진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 1978. 12 ~ 현재 (주)일진베어링 대표이사 회장
- 1982. 08 ~ 현재 (주)일진글로벌 대표이사 회장
- 1986. 01 ~ 현재 (주)일진 회장
- 1993. 03 ~ 2001. 12 현대자동차 협력회 회장
- 1991. 02 ~ 2009. 02 무역협회 이사
- 1999. 02 ~ 2005. 02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2002. 01 ~ 2006. 01 고려대학교 경제인회 회장
- 2017. 10 ~ 현재 (재)이상일문화재단 이사장

상훈

- 1987. 03 동탑 산업 훈장(기업 기술 개발)
- 1990. 11 생산성 우수 기업상 수상(상공부)
- 1992. 12 1992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올해의 교우상」 수상
- 1994. 03 국무총리 표창(조세의 날)
- 2000. 11 2000년 대한민국 기술대전 동상수상(산업자원부 장관)
- 2001. 03 성실 납세상 수상(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 2002. 05 금탑 산업 훈장 수상(중소기업인 부문)
- 2004. 11 무역의 날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 2005. 03 성실 납세상 수상(대통령)
- 2006. 11 무역의 날 「2억불 수출의 탑」 수상
- 2011. 11 무역의 날 「3억불 수출의 탑」 수상
- 2012. 03 납세자의 날 「모범 납세자 표창」
- 2013. 11 무역의 날 「4억불 수출의 탑」 수상
- 2015. 11 무역의 날 「5억불 수출의 탑」 수상

남들은 '경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지만,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된게 최고의 경험'입니다.
I was fortunate to have a teacher as wonderful as you are.

명예교수

사 은 회

5월 10일(금) 12:00

정몽원 경영대학 교우회장은 은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아시안라이브에서 명예교수사은회를 열었다.

이번 사은회에는 김동기, 신수식, 황규승, 강호진, 이장로 명예교수와 정몽원(경영 74)경영대학 교우회장, 구자형(경영74) 수석부회장, 오성호(경영79) 사무국장이 함께 하였다. 교우회에서는 향기 가득한 카네이션 상자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명예교수 한 분, 한 분께 마음으로 전달하였으며, 은사님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였다. 특히 조익순 명예교수님을 비롯하여 연로하신 교수님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 마음들이 강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경영대학의 발전에 대하여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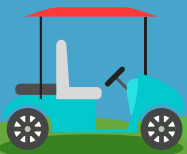
친선 골프대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2019 친선 골프대회

일시 : 5월 17일(금)

장소 : 여주 세라지오 C.C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경기도 여주 한라 세라지오CC에서 경영대학 교우회 친선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12개조의 약 50명의 교우가 참석한 이번 행사는 약 5시간의 라운딩 후 만찬행사로 이어졌다. 구자형(경영74)교우회 부회장은 “교우회에 보내주시는 교우들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809모임에 감사드린다”로 정몽원(경영74) 교우회장의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김문기(경영72)교우는 “많은 후배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니 경영대 교우회의 활성화가 느껴진다. 앞으로도 후배 교우들의 관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78학번 이흥영 교우가 신페리오 방식으로 71.4점을 기록하여 우승의 영광을 거머쥐었으며, 메달리스트에는 73타로 80학번 이선용 교우, 준우승에는 86학번 유재열 교우가 선정되었다.

우승	이흥영(78학번) - 71.4점	메달리스트	이선용(80학번) - 73점
준우승	유재열(86학번) - 71.4타	롱기스트	황중권(91학번) - 250m
니어리스트	이봉기(80학번) - 0.7m	다파상	한덕철(78학번) - 12개
다보기상	김용태(73학번) - 12개		



친선 골프대회



도움주신 분

정몽원 (경영74 / 교우회장, 한라그룹 회장)

제주세인트폴골프 & 골프텔 4인용 이용권, 세라지오 4인용, 기념타올 80세트

배영환 (경영75 / (주)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 이사)

캐디백 & 보스톤백

한덕철 (경영78 / 교우회 부회장, 삼일회계인 Assurance 1분부 부대표/본부장)

발렌타인 30년산 1병

김재욱 (경영81 / 경영대학장)

고대와인 10병

김평국 (경영89 / 교우회 이사, (주)디유넷 대표)

수입맥주 & 탄산수 60세트, 이태리 수제맥주 5세트, 미국 YOBO SOJU 10병

809모임 50만원



909모교방문의 날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모교 경영대학 본관 앞에서 「909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809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909모교방문의 날」 행사는 90학번대 교수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가족들도 함께하여 약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150여명의 교수들을 대외협력처 소속 홍보대사 '여울'을 통하여 7개의 조로 나누어 인문대에서 공대에 이르는 전체 캠퍼스를 투어하였다. 그 이후 경영대 학생홍보대사 'KUBE'를 통하여 경영대 건물 3동과 경영대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현대차경영관 유휘성 강의실(상58)에서 즐거운 대화 시간을 가졌으며, 구자형 수석부회장(경영74), 정경모 809대표(경영86), 김종혁 부학장(무역87), 최창규 909대표(경영90)들이 참석한 교우들과 가족들에게 반가움을 전하였다.

처음으로 개최된 이 행사는 참석한 교우들이 재학시절보다 학교의 발전된 모습과 위상을 느끼고, 교우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들었던 학교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909교우들은 이 행사가 아닌 다른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여 여러 선·후배와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야구부후원금행사



야구부후원금 행사

구자열 교우회장(경영72)은 7월 1일 '2019 정기고연전 후원의 날' 행사를 열고 5개부 운동부 및 학생회와 응원단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주)건영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진택 모교총장, 구자열 교우회장, 이형수 건영회장을 비롯 교우들과 5개 운동부 감독 및 선수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우회는 후원금 2500만원과 11개 단과대학교우회가 함께 조성한 후원금 2500만원을 합쳐 5개 운동부에 각각 1000만원씩 총5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축구부는 의과대 · 간호대 · 보건과학대교우회, 럭비부는 정경대 · 사범대교우회, 야구부는 경영대 · 문과대 교우회, 농구부는 공과대 · 생과대 교우회, 아이스하키부는 법과대 · 이과대 교우회가 후원했다.

이와는 별도로 총 교우회는 총학생회와 응원단에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고, 교우체육회(회장=오규상 · 법학75)가 5개부 감독들에게 각각 200만원의 격려금과 총학생회에 100만원, 응원단에 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구자열 교우회장은 “승패를 떠나 뜨겁게 펼쳐지는 양교의 응원문화는 학과와 학번을 떠나 양교 선후배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면서, 일체감과 단결심을 갖게 했다. 이 아름다운 우정과 화합의 전통이 반드시 잘 계승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전달되는 선배들의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힘찬 기운을 불러 일으켜, 고대가족 모두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리라 확신한다. 33만 교우들은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힘차게 여러분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택 총장은 “고(故)인권환 교수님께서 <고대정신 전통과 미래>에서 고려대 스포츠의 정신은 용기, 진취적 전통으로서 호랑이 정신이라 할 수 있고 호랑이 정신은 강한 의지와 용맹스러운 기상이며, 불패의 신념과 불퇴의 정신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후 만찬이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형수 교우가 소고기와 돼지고기 220kg를 준비했다. 만찬 이후에는 구자열 교우회장과 정진택 총장이 선수 개개인과 악수를 하며 정기고연전 우승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연전 준비를 해서 선배님들께서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것에 꼭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구부
김대환(체교16)선수

94학번 홈커밍데이

94 학번 홈커밍데이

일시 | 8월 20일(화) 7시 30분

장소 | LG-POSCO 경영관 안영일홀

2019년 39회 「교우의 밤」의 주최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94학번을 위한 만남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욱(경영81)경영대학 학장, 오성호(경영79)경영대학교우회 사무국장, 최창규(경영90)909회장과 94학번 2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재욱 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랜만에 찾은 학교에서 서로의 의리를 다시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오성호 사무국장은 “우리 경영대학교우회는 우리나라 단과대학동창회 최초로 1981년부터 매년 교우의 밤을 개최하여왔다. 올해 경영대학 교우의 밤 주최학번인 94학번이 후배들을 위한 선배의 전통을 이어 나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선배들이 열심히 진행했던 ‘교우의 밤’

의 영상으로 앞으로 맞이하게 될 행사를 지켜 볼 수 있게 하였다.

94학번 교우의 회답으로 94학번 사무총장 정재학 교우는 “동기들과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올해 교우의 밤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94학번 회장단들 회답 이후 만찬과 친목을 도모하였다.



2019 정기 고연전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된 우리 2019 정기 고연전 열려

13호 태풍 링링복상으로 둘째날 경기 아쉽게 취소돼

고려대와 연세대는 9월 6일(금) 2019 정기 고려대학교 · 연세대학교 친선경기
대회(이하 고연전)를 개최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대한민국 양대 사학명문답게 굳건한 우정과 전통을 재확인하는 자리인 정기고연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일제강점기 민족의 울분을 터뜨린 보성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대항전의 전통을 이어받은 정기고연전은 지금까지도 양교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축제로 꼽힌다.

양교의 체육 교류 역사는 1925년 정구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교의 첫 경기였던 정구대회 이후 1927년 보-연전(보성전문-연희전문)에서 축구경기를 시작으로 고연전의 모태가 시작됐으며, 1965년부터 현재의 5개 종목(야구, 농구, 빙구, 럭비, 축구)의 정기고연전으로 자리잡았다.

고연전 첫날인 6일(금) 오전 10시, 목동야구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9 정기고연전의 막이 올랐다. 개막식은 양 선수단이 입장한 후, 양교 총장과 총학생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주최교인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의 축사에 이어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은 고려대와 연세대 양교의 학생에게 환영하는 말을 전하며, 선수들에게는 응원을 건넸다.

축사에서 정진택 총장은 "김용학 총장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세의 역사를 쓰고 있는 연세대는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며 우리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저희 고려대도 창의적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교는 서로의 전통과 학풍을 존중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세계적 명문 대학으로 지속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학생 선수들의 멋진 승부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도록 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학생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최선을 다해 준비한 양교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2019 정기 공연전





[야구]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

오전 11시, 목동 야구장에서 정기전의 시작을 알리는 야구경기가 열렸다. 기상 상황으로 경기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맑은 날씨에 정상적으로 예정 시간에 진행됐다. 학생들의 열띤 응원 속에서, 팽팽한 경기는 2회차로 향했다. 먼저 웃은 것은 연세대 측이었다. 2회 2사 2루 상황에서, 김주한(연세대 16)이 홈런으로 좌측 담장을 넘기며 선취 득점에 성공했고, 연세대가 2점을 앞서가게 됐다.

3회, 최현준(체교 18)이 날카로운 주루플레이로 득점하며 고려대는 빠른 속도로 연세대를 추격했다. 하지만 나영채(연세대 17)가 출루 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홈으로 들어오며 1-3으로 점수 차를 벌렸

다. 경기 도중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로 경기가 1시간 가량 중단되면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던 형관우(연세대19)가 흔들렸다. 고려대 선수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2명의 주자가 홈으로 돌아와 3-3 동점을 만들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7회, 연세대 1사 만루 상황에서 백도렬(연세대18)이 2루타를 쳐내며 3점 차를 앞서갔다. 계속해서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지만, 큰 반전 없이 3-6의 결과로 연세대가 정기고연전의 첫 승을 가져갔다. 굵은 날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학생들은 박수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빙구] "내년의 승리를 기약하며, 족잖싸" 아쉬지만 잘 싸웠다

오후 2시,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하키 경기가 진행됐다. 작년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던 만큼, 올해에도 학생들의 큰 기대와 응원 속에서 1피리어드가 시작됐다. 1피리어드 내내 고려대와 연세대는 치열하게 맞붙으며 접전을 펼쳤다. 계속되는 연대의 날카로운 슈팅에도 심현석(체교 16)골리의 선방으로 고려대는 침착하게 수비를 이어나갔다. 이제희(체교16)이 골대 좌측에서 퍽을 쏘았지만 김태경(연세대 17) 골리가 잡아내며 경기는 팽팽한 균형을 이뤘다.

양교 학생들의 열띤 응원 속에서 2피리어드가 진행됐다. 선취골은 연세대의 몫이었다. 정현진(연세대 19)이 고려대 수비수들을 돌파하고 밀어 넣은 퍽이 골대를 통과하며 득점했다. 하지만 곧 이어 신상윤(체교16)의 퍽이 김태경 골리의 가랑이 사이를 통과하며 1-1 동점을 만들어냈다. 이후 이어지는 연세대의 공격 속에서 심현섭 골리의 선방이 더욱 빛을

발했다. 그러나 15분 55초, 오인수(연세대 18)이 퍽을 고대 골대로 밀어 넣으며 다시 연세대가 앞서나가는 상황에서 2피리어드가 종료됐다.

3피리어드가 시작되고, 고려대는 반격하기 위해 여러 번 강한 슈팅을 날렸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세대의 연속적인 슈팅이 이어졌지만, 고려대 수비수들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선방했다. 하지만 김건우(연세대 18)의 퍽이 골망을 흔들며 연세대는 1점 더 도망갔다. 이후 고려대는 골리를 김기원(체교19)로 교체 투입하여 경기의 흐름을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연세대가 한번 더 득점하며 우세를 굳혔다. 작년의 우승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최종 스코어 1-4로 쓴 패배를 느껴야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고려대 학생들은 누구보다 아쉬울 선수들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으며 '화이팅'을 연호해 격려했다.



[농구] "이것이 압승이다" 2019 공연전 농구

농구경기가 열린 장충체육관은 시작 전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경기시작 1시간 30분 전인 오후 3시 30분부터 양교 응원석은 가득 메워졌다. 양교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자 곧이어 치열한 응원전이 시작됐다. 본교의 응원 소리에 맞추어 박정현(체교 16) 주장을 따라 고려대학교 농구부는 몸을 풀며 경기를 준비했다. 오후 5시, 시작 휘슬이 울린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정호영(체교 18)의 외곽슛으로 1쿼터를 시작했다. 경기 시작 1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고려대는 이미 6득점을 했다. 깔끔하고 멋진 시작으로 고려대 농구부는 이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이에 맞춰 고려대 응원단과 본교 학생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응원했다. 연세대는 이러한 초반 스포츠에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공격에 실패했다. 특히나 고려대의 수비 전략에 계속해 당하는 모습, 지속적인 파울을 하는 실수를 보이기도 했다. 1쿼터 중반, 15~18점의 격차가 벌어졌지만 박지원(연세대 17) 선수를 비롯한 연세대 농구부는 이에 반격하여 격차를 줄여나갔다. 그럼에도 연세대는 그 격차를 줄여나가지 못한 채 1쿼터는 29:16으로 마무리됐다.

김진영(체교 17)의 2점 슛으로 시작된 2쿼터는 더욱 치열했다. 1쿼터에서 생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연세대의 공격에 몇 차례 점수를 내어주기도 하였으나 꼼꼼한 수비와 공격 전략에 연세는 점수 격차를 많이 줄이지는 못했다. 쿼터 종료 1분 전 전형준(연세대 17)이 득점을 하였지만, 정호영(체교 18)이 바로 반격을 날라며 득점 후 쉬는 시간이 이어졌

다. 3쿼터 초반 연세의 파울로 인해 하윤기(체교 18)가 자유투로 득점을 하며 17점의 격차를 벌렸다. 지속적인 강력한 수비 전략에 연세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고려대의 리바운드, 패스플레이 그리고 슛의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줌으로써 연세의 기를 꺾었다. 결국 분위기는 반전되지 않은 채 82:70으로 농구 경기가 마무리됐다.

고려대의 승리로 연이은 뱃노래(응원곡)가 틀어졌고, 오랜 경기에 많이 지쳤던 학생들도 모두 일어나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격렬한 응원을 펼쳤다. 마지막 경기였던 만큼 농구의 승리는 더 달콤했다. 이튿날인 9월 7일(토) 예정된 공연전 둘째날 경기인 럭비와 축구는 빠르게 복상하던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소됐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7일 오전 합의를 통해 이날 진행할 예정이던 2019 정기공연전 둘째 날 경기 취소를 결정했다. 고려대는 오전 7시 30분경 총장 명의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태풍 링링의 복상으로 인해 재난 안전사고 예방과 태풍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다.'

곳은 날씨 속에 치러진 정기 공연전이었지만 지난 1년간 피땀흘려 준비하고 경기에 임한 선수들을 비롯해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구성원들에게는 모두가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었다.

- 교우 회보 발췌





후배들아 고대 오길 잘했지!!!



Smile~❤️

정기전 뒤풀이 행사인 참살이길 행사에서 경영대 교우회는 후배들을 위한 주점을 준비했다. 그동안 후배들이 가득 메웠던 참살이길에서도 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하여, 선배들은 후배들의 안전을 걱정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되자 점점 뜨거운 함성 소리와 함께 후배들은 참살이를 가득 채우며 이날의 축제를 즐겼다. 경영대 교우회에서 준비한 주점에는 수많은 재학생들과 많은 교우들이 함께 자리하여 세대를 막론하고 고경인이라는 이름으로 즐거움을 만끽했으며, 구자열(경영72)

총교우회장, 정진택(기계79)모교총장, 김재욱(경영81)경영대학장, 신수식 명예교수 내외분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구자열 총장은 열렬한 환영 속에서 힘차게 건배를 제의했고, 이에 자리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주점이 떠나갈 듯 화답했다.

협찬해주신 79동기회(회장 서학석), 809모임(회장 여용동), 909모임(회장 최창규), KUBS Ladies(회장 이충진), MBA교우회(회장 전이현)에게 감사드립니다.





삶의 사표셨던 은사님의 서거를 애도함 故 조익순

1924 출생
2019.6.14. 별세

존경하는 조익순 교수님! 이제 이 세상에서 다시 선생님을 뵈올 수가 없다니요. 오열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선생님을 사모하는 그 많은 분들과의 정분을 어떻게 끊으시고 차마 눈을 감으셨습니까.

선생님께서서는 향년 96세로 근 1세기를 사시면서 그렇게도 열심히 학문연구에 정진하셨고, 연마하신 학문을 끊임없이 심으시고 뿌리셨기에 이 땅에 그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시고 배출하셨습니다. 항상 진취적이고 선각자적인 학문 탐구와 전파는 우리나라 회계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이러한 학구적인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 학계와 유관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에게 헌정하는 “회계인 명예의 전당”의 영예를 봉정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선생님의 서거는 우리나라 큰 학문의 보고가 무너졌고 저희들 배움의 원천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몸은 비록 가셨으나 살아생전 그렇게도 열심히 심으시고 가꾸신 학문의 씨앗은 도처에서 발아되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선생님이 이 땅에 남기신 학문축적의 표징으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 저는 반세기간 선생님과 의 자제간의 연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58년 대학입학부터 학부와 대학원과정 모두 선생님의 지도로 배웠고,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설립된 기업경영연구소 소장으로 계실 동안은 제가 연구원으로 선생님을 보필하며 오랜 동안 모셨습니다. 그 후에는 선생님의 지도로 학위를 받은 문하생들의 모임인 고박회모임으로 절기 따라 선생님께 사은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금년은 선생님의 발병소식에 이심전심으로 모인 고박회원 17명이 선생님의 입원실에서 마지막 사은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가셨어도 30년간 이어온 고박회모임은 앞으로도 선생님을 추모하고 흠모하는 모임으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저는 대를 이은 선생님의 사은의 은덕을 입은 사람입니다. 선생님께서 모교 행사에 오셨다가 경영대학 본관 5층에 있는 저의 딸의 연구실에 들리셔서 이 방이 바로 내가 쓰던 연구실이었다 하시며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이렇듯 장기간 부모님 같이 모시고 존경했던 선생님은 가셨습니다. 병실에서 자주 뵈올 때마다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 집에 가고 싶다며 눈물 흘리셨는데 하나님은 이 염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매 생과사를 갈라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엄연한 섭리를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저희들 이렇듯 훌륭하셨던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삶의 사표로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 받고 눈물 거두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번뇌 다 내려놓으시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는 그 곳에서 영원한 안식 누리세요.
불초 소생 윤영연 선생님의 영전에서 선생님의 학덕을 기리며 명복을 비는 고매한 조문객님들을 대신하여 애도의 뜻을 전하
며 머리 숙여 하직인사 드립니다.

2019년6월 17일 불초 제사 윤영연(경영58, 전)동덕여대부총장) 호곡

경력

- 2016 회계인 명예전당 “제1회 헌액인”으로 선정
- 1999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 1992.07 ~ 1993.12 한국세무학회 회장
- 1980 ~ 1981 제25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 1975 ~ 1976 한국경영학회 회장
- 1974 ~ 1977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 1973 ~ 1976 제1대 한국회계학회 회장
- 1970 ~ 1974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소장
- 1956.08 ~ 1989.08 고려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 1954 ~ 1956 연세대학교 전임강사

학력

- 1964 ~ 1966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워싱턴대학교 대학원
- 1952 ~ 1954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 ~ 1952 부산대학교 경제학 학사



회원동정



박대양(경영81)

2019년 8월 5일 박대양 교수가 한국투자공사(KIC) 투자운용본부장 겸 부사장에 임명되었다.



백종일(경영81)

2019년 8월 6일 백종일 교수가 JB자산운용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전창진(경영82)

2019년 7월 1일 전창진 교수가 전주KCC 감독으로 복귀하였다.



이윤표(경영83)

2019년 5월 7일 이윤표 교수가 모건스탠리 한국 투자운용사업부문 본부장에 선임되었다.



송인호(경영87)

2019년 7월 26일 송인호 교수가 하이자산운용 최고경영자에 선임되었다.



정익선(경영89)

2019년 3월 22일 정익선 교수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등 핵심 계열사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박재환(경영80)

2019년 4월 11일 박재환 교수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되었다.



박진우(경영81)

2019년 7월 1일 박진우 교수가 회계법인 베을 대표파트너에 취임하였다.



허영택(경영81)

2019년 3월 26일 허영택 교수가 신한캐피탈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조경식(경영82)

2019년 4월 17일 조경식 교수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감사에 선임되었다.



강도태(무역86)

2019년 8월 8일 강도태 교수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에 선임되었다.



이준서(경영87)

2019년 4월 11일 이준서 교수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조영환(경영90)

2019년 8월 27일 조영환 교수가 HDC리조트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조성완(무역80)

2019년 5월 2일 조성완 교수가 한국코퍼레이션 컨택센터 부문 사장에 선임되었다.



박철순(경영81)

2019년 3월 27일 박철순 교수가 KG모빌리언스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임영문(경영82)

2019년 4월 2일 임영문 교수가 SK건설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양승열(경영83)

2019년 3월 27일 양승열 교수가 삼정회계법인 최고운영책임자에 선임되었다.



백명기(무역86)

2019년 4월 5일 백명기 교수가 조달청 차장으로 승진하였다.



하범종(경영87)

2019년 3월 26일 하범종 교수가 LG사내이사에 선임되었다.



이정훈(경영93)

2019년 5월 20일 이정훈 교수가 웅진그룹 기획조정실장에 선임되었다.

교수동정



조익순

▶◀부고 2019년 6월 14일 모교 경영대학 조익순 명예교수가 별세하였다. 향년94세. 1956년 모교에 부임해 1989년에 정년퇴임 하였다. 모교 경영대학원장, 한국회계학회장, 한국세무학회장, 한국경영학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박명섭(무역74)

2019년 8월 31일 모교 박명섭 교수가 정년퇴임과 함께 명예교수에 위촉됐다.



장하성(경영74)

2019년 4월 8일 모교 경영대학 장하성 명예교수가 주중대사로 취임하였다.



이만우

2019년 6월 21일 모교 경영대학 이만우 교수가 한국회계학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수여하는 'KAA-한경언론상' 제1회 수상자에 선정되었다.



문형구

2019년 8월 31일 모교 문형구 교수가 정년퇴임과 함께 명예교수에 위촉됐다.



김상용

2019년 6월 1일 모교 경영대학 김상용 교수가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조명현

2019년 7월 16일 모교 경영대학 조명현 교수가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 이사에 선임되었다.

“기부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일”

자수성가 기부왕의 끝없는 모교 사랑

'창의고대'로 가는 과학 연구 발전에 써달라며 10억 추가 기부

유휘성(81세, 상학58)교우는 6월18일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식 10억을 기부했다.

유 교우는 2011년 10억 원, 2015년 10억 원, 2017년 잠원동 소재 아파트 기증에 이어, 이번에 10억 원을 다시 쾌척하면서 누적 50억 원이 넘는 거액 기부를 실천했다.

충북 진천 출신인 유휘성 교우는 13세 때 한국전쟁으로 부친을 여의고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다. 그는 힘든 환경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여 1958년 고려대 상학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 1970년대 건축공사와 토목자재 생산을 하는 건축회사를 설립하고 그는 끈기와 열정으로 수차례에 걸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기업가로 자수성가했다. 사업을 키워나가면서도 한평생 실천해 온 근면과 성실, 검소한 생활 습관은 지속하면서 재산을 모았다. 이후 2010년 재산을 정리하면서 모교에 기여하고 싶었던 오랜 결심을 실천에 옮겨 고려대 신경영관 건립기금 10억 원으로 기부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2015년에는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성함에 들어있는 '仁'자와 본인 이름의 '星'자로 명명한 '인성장학기금' 10억 원을 또 다시 기부하며 남다른 모교 사랑을 드러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연간 40여 명의 인성

장학기금 장학생을 선발하여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고려대 내 개인기부로 조성된 장학기금 중 연 최대 수혜인원, 최대 장학금액에 해당된다.

기부식에 참석한 유 교우는 “친구들과 추억이 깃들고 나를 키워준 마음의 고향 고려대에 기여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나의 후배들이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인재가 되도록 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휘성교우(좌), 정진택 고려대 총장(우)

809회장 여 용 동(경영82)

1. 벤처금융업체 다원기술금융(주)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업체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원기술금융은 2008년에 설립된 벤처캐피털이고, 지금은 이와 함께 CB/BW 등 메자닌 투자, M&A 컨설팅, 경영전략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원기술금융은 고객사에게 건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809의 회장이 된 소감은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 학번의 선후배, 동기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뜻깊은 모임에 회장을 맡게 되어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회장님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고 809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소통하면서 더 많은 추억과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809 회장님으로 활동하시는 동안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지 목표를 말씀해주신다면?



809 모임의 지상과제는 더 많은 선후배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809 모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회원을 각 학번 대표로 선임하여 학번 대표 조직 중심의 효율적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벼운 일상 소식과 안부 인사를 시작으로 카페, 밴드,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촘촘한 연락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오프라인 모임으로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후배간의 활발한 소통과 공유가 이뤄지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고, 학번 대표자간 회의후에는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전체 회원들이 의사결정의 근거를 이해하여 809 모임의 신뢰와 지지도를 얻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로 창립 9년이 되는 809 모임이 한 단계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4. 앞으로 구체적으로 809 모임은 어떠한 활동을 할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809 모임의 키워드는 “노후 즐거움의 30%의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정기모임, 골프대회 등을 통해 학번 선후배간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외에도 당구/와인/문화예술/예술탐방 등의 주제 중심의 소모임 및 이벤트 추진, 지역별 번개 모임 활



성화로 회원들의 참여 공간을 확대하여, 창의적인 모임 아이디어 속에 회원들의 참여로 더욱 더 재미있는 809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특히 주제 중심의 소모임은 “노후 즐거움 30%의 핵심”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영화감상 모임, 리움박물관에서 미술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서울 역사탐방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1~2년은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여 먼저 회원들의 선호도를 파악한 후 선호도가 높은 몇 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보다 깊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역사탐방의 호응이 높다면 준전문가 수준으로 행사를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주제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회원이 재능기부를 하는 방안도 생각 중입니다.

5. 809만의 끈끈함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올해 골프모임에서 백호팀, 흑호팀으로 나누어 우승한 (주)

인터뷰-여용동

아시안스타 대표 이선용 교수(경영80)에게 그린자켓을 수여하는 세례모니를 했습니다. 원래는 착용만 하고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이선용 교수께서 너무 맘에 들어하셔서 내년에 세탁해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그린자켓 행사를 통해 구성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다음 회장배 골프대회에서는 우승 팀에게 고려대의 상징색인 크림슨 자켓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09 집행부는 이 크림슨 자켓을 단체로 맞추어 809 모임에서 착용할 계획입니다.

6. 현재 809 운영의 애로사항을 말씀해주세요.

809 운영의 애로사항은 역시 어느 모임이나 공통적이지만 운영기금의 확보 문제입니다. 809는 가입시 100만원의 입회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행사진행으로 기금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회원들의 경우 809 모임뿐 아니라 각 기수모임, 경영학과 교우회, 고등학교 동문회등 다양한 동문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809의 운영기금을 이중 삼중의 중첩적인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확보 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809 모임만의 차별화된 즐거움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기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809 집행부의 숙제입니다.

7. 809 모임이 경영대학과 경영대학 교우회 발전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여러 모임들을 통해 809 회원들의 끈끈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임의 전통을 이어가고, 나아가서는 학교 발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회원들 상호간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장학금 지원을 포함하여 재학 후배들과의 멘토/멘티 활성화를 통해 재학생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회원상호간의 경조사 및 기념일을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여 809 모임 뿐

만 아니라 교우회를 포함한 모든 교우들 모임에 참여도와 충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가가는 809, 참여하는 809, 봉사하는 809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 회장님의 임기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시기에 임기가 짧은 편인 것 같습니다.

원래 809 모임의 회장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아래 학번이 회장을 맡을 준비가 안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80학번에서 회장을 오래 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2년씩 회장을 한다면 89학번이 지금 벌써 50세 인데 회장을 맡을 때면 60대 후반이 됩니다. 너무 늦게 회장이 되는 것이죠. 지금 809 모임의 문제는 후배 학번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후배 학번이 회장기수를 맡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당 학번 전체 회원의 참여도 늘게 됩니다. 제가 82학번 총동기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문과대-경영대-법대-정경대-의대 순서로 단과대 별로 돌아가며 회장을 했습니다. 의대의 경우 그전에는 참석이 매우 저조했는데 의대에서 총동기회 대표가 나오니 의대 동기들의 참여가 매우 활성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809 모임의 후배 학번이 빨리 돌아가며 회장을 해야지 모임이 고르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후배 학번이 아이디어도 많기 때문에 후배 학번에서 빨리 회장이 나와야 선배 학번들도 809 모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9. 809의 미래에 함께하는 것을 망설이시는 809 교우에게 한 말씀해주신다면?

지금 참여하면 평생 노후의 즐거움의 30%를 확보하는 것 이다라고 말하고 싶고 항상 즐겁고 보람있는 또 하나의 친구 같은 809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 인터뷰 경영대교우회 심수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거침없는 도전,
우리는 KUBS를
믿습니다**

리더의 자격



김 동 기
상학54, 대한민국의학원부회장,
전고대경영대학장, 고려대 명예교수

오늘날 한국은 조선조(Chosun Dynasty) 말기처럼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 그리고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 등 5개국 사이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하는 환경에서 이들 나라들로부터 커다란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큰 도전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과 정부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통해 국방과 경제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국가 경영을 해야 하는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요청되고 있다.

리더는 LAST의 법칙을 잘 지켜야 한다.

L(Listen)-상대방의 의견이나 요구를 경청한 다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결정한다.

A(Appreciate)-상대방의 의견이나 건의 또는 제안이 건설적이고 합리적일 때엔 좋은 건의, 의견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S(Support)-상대방의 의견이나 건의를 받아드릴 때엔 적극적으로 지지·찬성한다는 의사표시와 행동을 해야 한다.

T(Touch)-영어의 keep in touch with로서 편지, 전화, e-mail, 만남 등을 통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리더에는 전제/독재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절충형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은 민주형이라고 볼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될 수 있는 대로 권한을 하부기관장에게 위양하고 토론과 여론수렴을 거쳐 정책결정을 하는 유형으로서 보텀업(bottom-up)식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대간, 노사간, 계층간 및 지역간 갈등으로 표출되는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

로 사회분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많은 식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게 하고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법과 질서를 어기는 사람은 가차 없이 법대로 처벌하고 일체의 온정주의를 배척하는 강력한 신상필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제/독재형의 장점과 민주형의 장점을 결합시킨 '절충형'리더십을 국민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 같다.

리더십의 구성요소는 뚜렷한 목표와 비전, 신념과 원칙, 공사구분능력, 도덕적 엄격성, 솔선수범 능력, 지휘 능력, 기획/집행/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능력, 목표달성 능력, 복잡하게 만드는 카리스마와 외경심, 사랑/신뢰/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품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리더란 한마디로 말해서 따르는 사람이 많은 지도자(leader is a man who has many followers)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랫사람들이 리더를 보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능력이 바로 리더십인 것이다.

일본 천하를 통일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리더는 다음 다섯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見人力 : 사람이 뭉뭉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능력 있고 추진력과 복종심,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골라내는 능력

養人力 : 부하를 길러 승진도 시켜주고 요직에 앉을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능력

交人力 : 여러 직업, 여러 계층, 여러 지위의 사람들과 그

리고 국민대다수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강화하는 능력
 成事力 : 주어진 목표나 과업을 주어진 시간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성취시키는 능력
 用人力 :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이른바 유능한 인재를 골라서 잘 활용하는 능력

리더의 자리가 어떤 조직내의 중간 간부던 최고 간부던, 아니면 조그마한 중소기업 사장이던 대기업의 사장, 회장이던 또는 대통령이던 간에 모름지기 리더는 상술한 다섯가지 능력을 골고루 갖추어야 조직의 목표를 주어진 시간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사람은 대통령직에 익숙치않아 집무초기엔 얼마 동안의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하지만, 1년이 지난 뒤에도 시행착오가 계속 된다면 그것을 리더십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미국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장차 공군장교가 될 생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도자의 신조(leader's creed)'를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모든 리더들은 이 신조를 실천에 옮겨 생활화 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상관입니까? 리더입니까?

1. 상관은 공포심을 심어주고, 리더는 신념을 심어준다.
2. 상관은 "내가"라고 말하고, 리더는 "우리들"이라고 말한다.
3. 상관은 방법을 알고만 있고, 리더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4. 상관은 원망을 날게 하고, 리더는 신바람을 불러일으킨다.
5. 상관은 잘못을 꾸짖기만 하고, 리더는 잘못을 고쳐준다.
6. 상관은 권위에 의존하고, 리더는 팀웍에 의존한다.
7. 상관은 부하를 부릴려고만 하고, 리더는 앞장서서 솔

선수범한다.

8. 상관은 일을 고역스럽게 만들고, 리더는 일을 합리적으로 재미있고 쉽게 만든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향하는 한국사회의 좌표는 △ 보다 더 중산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잘사는 사회 △ 보다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열린 사회 △ 보다 더 서로 믿고 협력할 수 있는 신뢰사회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계 미국인 학자인 프랜시스 · 후쿠야마는 "Trust"라는 저서에서 신뢰는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자본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이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대국을 건설한데 반해 중국 · 한국 · 이태리 등 국가는 국민이 가족 이외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기업대신 가족중심의 중소기업이 발달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가족이외엔 잘 믿지 않는 「저신뢰사회」(低信賴社會)로서 중국에 가깝지만 재벌기업과 거대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면에서는 미국·일본에 유사한 산업조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려면 고신뢰(高信賴)라는 사회자본을 축적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상호 신뢰를 구축해주는 리더십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러한 신뢰구축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교향악단 지휘자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악단 구성원과 지휘자간에 구축된 고신뢰(高信賴)없이는 절대로 뛰어난 교향악 연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등 각기 자기 특유의 소리를 내는 모든 악기의 불협화음을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거대한 화음으로 만들어 내는 지휘자의 리더십이야말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가 필요로 하는 리더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기업가정신

저자는 실패하기 쉽고 위험부담이 큰 사업을 선택해서, 악전고투 끝에 기업을 성공시킨 기업인들 50명을 소개하였다. 독자들이 이 책을 접하면서 기업가들이 선택한 업종과 임직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했는지, 어떤 매니지먼트 전략으로 다른 기업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 어떤 경영전략과 기업문화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는지, 나아가서 기업인은 국가 · 사회 · 인류에 대해 어떤 공헌과 기여를 했는지,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조사 · 분석한 책 내용을 벤치마킹하고,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공하여 '자유롭고 풍요로운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김동기 (상54) | 현대경영사 | 2019. 07. 30.

조해균(상56)동기의 미술작품 전시회 ...

조해균 동기는 2019년 6월 3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 시니어스 기양타워 1층 갤러리에서 고대 경영대 졸업, 30여간 보험학 전공 대학교수 생활을 마치고 퇴임 후 여가 선용과 취미로 그리기 시작한 미술작품 중 우수작품을 골라 개인 작품 전시회를 열은 바 있다. 그는 모교 경영대를 졸업 후 독일 쾰른대에 유학하면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 후에는 한양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 교무처장과 상경대학장 등 요직을 맡아 후학을 지도하다 정년퇴임한 보험학계의 원로 교수다. 보험감독위원, 삼성생명 자문위원, 한국보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2014년에는 교보생명 창립자 신용호 회장이 설립한 대산 신용호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고 보험업계에서 최고 공로자에게만 시상하는 대산 보험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자기의 전공이나 걸어온 길과 전혀 다른 분야인 미술계에 노년기의 여가 생활을 위해 취미로 시작한 그가 짧은 기간 동안에도 미국에서 개인전 2회, 국내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 27회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며 특별상을 수상 하는 등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고, 우리 동기에게 귀감이 되는 그는, 훌륭한 학자요 예술가다. 그의 작품을 감상한 많은 애호가들이 그의 수준 높은 작품성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었다.



막수회 모임 ...

70년대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는 56학번 월례모임(막수회)은 2019년에도 1월부터 8월까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약수동 춘천 막국수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최근 모임은 8월 28일(수)까지 금년 8번 모임에 연인원 65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 비하여 참여인원이 다소 적어진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80대 중반에 접어든 고령의 동기들이라 그동안 열심히 나오던 동기도 지병으로 참석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유명을 달리하는 동기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 참석 동기가 줄어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임 때마다 화제의 대부분은 건강관리가 의제가 되고 건강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지배적이다. 56학번이 모임을 갖는 약수동 춘천 막국수 집은 지난 40여 년 동안 운영해오며 여러 매스컴을 통해 유명한 맛집으로 널리 알려져 왔지만, 근래에도 SBS TV 생활의 달인에서 '짬뽕의 달인'으로 선정되어 TV에 방영되는가 하면, 다른 매체에서도 유명한 맛집으로 소개하는 바람에 근래에는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을 수 없이 고객이 많이 찾고 있는데 매월 마지막 수요일 우리 '막수회'가 있는 날은 우리가 별도 예약을 하지 않아도 연중 고정 예약석을 마련해 놓고 우리 주변 테이블은 우리 동기들이 모두 모인 뒤에나 손님을 받을 정도로 우리를 우대 해주고 있다. 예년과 다름없이 되도록 많은 동기들이 모임 수 있도록 모임 경비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참석회원 1인당 1만원만 회비로 받고 있지만 올해도 최중해, 김지영, 박종혁, 양인환, 조해균, 변동수, 권용진(월별 찬조 순) 동기들이 그달의 회식비 전액을 부담하는 특별 찬조 및 그 이상의 찬조금을 회사해서 해가 갈수록 기금 잔액이 증가 되는 반가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매달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주는 동기 모두와 찬조금을 회사해준 동기들 모두에게 집행부에서 진정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안타깝게도 이달에 한광전전 아세아산업 회장, 허남욱(전 엘지 투자증권 회장) 두 동기가 별세했다. 모임 시작 전에 두 동기의 명복을 비는 간단한 의식을 가졌지만 빈소에 가지 못했던 동기들도 두 동기의 명복과 그들의 유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을 함께 가져주기 바란다. 지나온 과거보다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 안남은 우리 동기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여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기 바라며 모임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몸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동기회 봄 모임 ...

- 일시 : 2019년 5월 17일(금) 12시
- 장소 : 논현동 취영루

동기회장 초청 봄 모임은 동기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우찬 회장은 금년도 동기회의 각종 소모임을 더욱 활성화하여 동기들의 친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으며, 입학 60주년과 동기들의 팔순을 앞두고 특별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연말 송년회 석상에서 제시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금년 동기회 12월 송년모임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고 정시균 후임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게 됨에 따라 입학 60주년과 팔순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동기들의 좋은 의견제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월회 소식 ...

짙수달 둘째 월요일 12시 30분에 만나는 이월회는 4월 8일 14명, 6월 10일 13명, 8월 12일 14명이 양재역 5출구 앞 '양재등심'과 '소잡는날'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우의를 다졌다. 성영일 회장 외 동기 20명은 모임식대는 2명씩 순번제로 부담하고 있다. 성영일 회장 외 김우찬, 이병우, 박성학, 왕규철, 정시균, 김순구, 채갑병, 박인우, 도영해, 정희교, 엄종일, 이복성, 이채영, 이준원, 김충홍, 김지균, 김근도, 김문웅, 김윤장 동기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 10월 14일 모임도 양재역 '소잡는날'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광암회 소식 ...

홀수달 둘째 화요일 역삼역 '참배나무골'에서 12시에 만나는 광암회는 4개월 만에 7월 9일 정례모임을 23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으며, 이날 오찬은 왕규철 전 회장이 식사대금을 부담하였다. 이채영 회장 외 김우찬, 이병우, 김순구, 김문웅, 김근도, 김길남, 김병수, 김승현, 김은동, 김윤장, 민병직, 박수죽, 박인우, 박광옥, 박성학, 양재광, 엄무성, 이경순, 이창웅, 이근창, 이병우, 이정남, 이준웅, 양재광, 장경작, 정시균, 정홍진, 채갑병, 최섭, 최홍, 최창규, 하준기, 황인강 등 35명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 모임은 9월 10일에 갖기로 하였다.



사목회 소식 ...

매월 넷째 목요일 만나 서울 주변 둘레길을 걷고 있는 사목회는 4월 25일 구파발 앵봉산 둘레길, 5월 22일 남산 남측 솔숲길, 6월 27일 북악산 백사실 계곡, 8월 22일 남한산성 행궁둘레길 등을 걸었고 이경순, 김문웅, 왕규철 등 몇몇 동기들이 오찬을 제공했다. 박인우 회장을 비롯한 김문웅, 김순구, 김병수, 김근도, 김택원, 민병직, 박무용, 박수죽, 박원우, 박진자, 엄무성, 윤종완, 이근태, 이경순, 이정남, 이원태, 이창웅, 이채영, 정홍진, 조승자, 최민자, 최 섭, 최창규, 하준기 등 25명이 함께 걸으며 건강을 다지고 있다. 9월에는 안산 자락길을 걷기로 하였다.



초암회 소식 ...

홀수달 셋째 화요일에 만나는 초암회는 5월 21일, 7월 16일 반포동 '산들해 한정식'에서 성영일 회장 외 동기 19명이 정례모임을 갖고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모임의 오찬비용은 연초에 연회비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성영일 회장을 비롯한 강승열, 구중서, 김성희, 김연채, 라석균, 박성현, 성규진, 양재광, 안희민, 이복성, 이정남, 조일규, 전준옥, 정기성, 정의철, 채규학, 최창규, 홍대우 등의 동기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고 있다.

도암회 소식 ...

매월 셋째 금요일에 만나는 도암회는 4월 19일, 6월 21일, 7월 19일 여의도 리버타워빌딩 2층 '한우집'과 전경련회관 지하 '프리가'에서 김 실 회장을 비롯한 김홍곤, 김도민, 김윤장, 박광동, 박광근, 박윤서, 서진석, 이준웅, 이채영, 조방래, 채규학, 최 홍 등 13명의 동기들이 불고기예 막걸리를 기울이며 혼란스런 세상사를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자회 소식 ...

홀수달 셋째 일요일 전국사찰순례를 다니는 불자모임에서는 5월 19일 철원의 열쇠부대 전망대와 북한 노동당사 및 고석정을 돌아본 후 천년고찰 도피안사와 심원사를 참배하였다. 엄무성 부부, 최민자 모자, 박수죽 부부, 박진자, 김순구, 박인우, 이병우, 이근태, 이채영, 정홍진, 조승자 동기 등이 동참하고 있다.



학번별 소식

기타 소모임 소식 ...

① 4월 27일 제9회 경영대 교우회 걷기대회에 12명의 동기들이 동참하여 오랜만에 모교의 발전된 모습들을 돌아보았다. 이날 함께한 동기는 김길남, 김문웅, 박진자, 박인우, 박준성, 엄무성, 이경순, 이근창, 이원태, 이채영, 조승자, 하준기 등이 재학시절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② 6월 20일 12시 김우찬 동기회장 초청으로 회장단 4명 과 여학우 10명이 역삼역 앞 “파크루안”에서 만나 여학우들의 동기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준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건강을 잘 관리하여 동기회 모임에 계속해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③ 민족의 성지인 백두산 및 고구려 유적지 탐방 8주년을 맞아 이춘원 전 동기회장의 초대로 7월 2일 “필동면옥”에서 12명의 동기들이 참석하였고, 이경순, 이근태 동기의 초대로 7월 5일 종로5가역 보령약국 뒤 “팔도횃집”에서 12명이 모여 옛 추억을 공유하였다. 그간의 대마도 장강삼협 크루즈에 이어, 새해에는 입학 60주년을 앞두고 북파코스 로 백두산을 다시 오르는 계획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④ 실버회 동기들은 전 동기회장 박준성, 감사 김정자 회원이 광주에서 상경할 때 모임을 갖곤 하는데 이번 8월 28일 김정자 감사 상경시에도 김문웅 동기의 초대로 종로5가 “팔도횃집”에서 만나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문웅, 김순구, 김정자, 박수죽, 박인우, 박진자, 최민자, 엄무성, 이근태, 이채영 등 10명이 참석하였다.



62 (회장 오무환 / 총무 한상욱)

요산회 군산 고군산군도 방문 ...

• 일시 : 2019년 6월 11일(화)

15명의 동기들이 용산역에서 새마을기차를 타고 군산역에서 하차 후 대절한 버스를 타고 근대역사박물관을 둘러보고 국내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에 둘러 관람하고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 무녀도, 선유도를 거쳐 장자도 펜션에 짐을 풀고 저녁 준비 후 홍성에서 배달해온 한우와 돈육을 숯불에 구워서 양주와 막걸리를 즐기며 하루의 즐거움을 만끽 했다. 다음날 조식 후 장자도 주위를 산책하고 대절한 버스를 탄 후 선유도에 도착 돌레길을 산책하고, 버스타고 선유도를 둘러본 다음, 횃집에서 점심식사 후 군산시에서도 유명한 은파호수공원에 도착하여 삼삼오오 모여 휴식을 취하고, 군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 저녁을 먹으면서 이틀간의 즐거운 여행을 회상하면서 아쉬운 여행을 마무리 했다.



63 (회장 홍금일)

경영63학번 31차 총회 개최 ...

- 일시 : 2019년 6월 3일(월)
- 장소 : 삼성역 무역센터 52층 탑클라우드
- 글쓴이 : 남 훈

63동기회 31차 정기총회가 삼성역 무역센터 탑클라우드 52층에서 개최되었다. 48명의 동기가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맛있는 안심스테이크에 고급와인을 곁들여 오찬을 하며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반갑게 담소를 하며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신임회장에 홍금일 동기를, 신임감사에 임휘련 동기를 선출하여 앞으로 1년간 63동기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날 총회에 동기회 창립시 초대회장을 지낸 이인중 동기가 오랜만에 대구에서 상경, 참석하여 오찬을 협찬하였으며, 오찬 음식의 격에 맞게 유병택 동기가 고급 프랑스와인을 협찬하여 참석한 동기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특히 한상용 동기도 홀인원 기념 타올을 선물하여 참석한 동기들의 귀갓길을 따뜻하게 하였다.



64 (회장 성기남 / 사무총장 박채길)

병원경영학계를 이끌어온 정기선 동기 ...

정기선 동기는 최근 병원의 경영자 등을 위해 '유능한 병원 CEO나 관리자 되고, 행복하게 살려면'이라는 전문서적을 발간하였다. 정기선 동기는 4학년때 공인회계사 본시험 17기에 합격하고, 졸업 후 한국산업은행에 입사하여 부실기업의 실사와 진단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미국 Fairchild Semiconductor 한국지사 경리과장으로 옮겨 선진 경영 시스템을 경험하였고 회계법인으로 옮겨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다가 '서울대병원의 관리체계 설계 프로젝트'를 맡은 경험을 살려 서울대병원 부설 병원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등을 맡아 12년 간 근무하였다. 병원경영전문 컨설팅회사를 창설하여 경영진단, 전략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30년 이상 병원경영업무에 종사하여 병원계의 '병원경영의사'로 알려지게 되었다. 2000년에는 모교병원(안암과 구로)의 경영상태를 진단, 여러 개선안을 제시하여 연간 손익을 수십억 원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은 바 있다. 미국 Thunderbird 국제경영대학원(석사), 모교 경영대학원(박사) 수료 후 가천의과학대학교와 아주대 경영대학원 교수로서 후학 양성과 병원경영학 발전에 기여하였고 한국병원경영학회와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의 회장도 역임하였다. 병원경영학개론, 병원 회계, 재무관리론, 경영분석론, 인사관리론, 병의원 원장론 등 8권의 전문서적이 여러 대학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경영대 교우회 경영64 걷기대회 최다참가 ...

- 일시 : 2019년 5월 5일(일)

64학번이 올해로 입학 55주년 맞아 경영대 교우회에서 주최하는 교정건기에 전 학번 중 최대 인원인 27명이 참가하여 2시간 동안 많이 달라진 교정을 둘러보았다. 교정을 안내하는 후배 재학생들의 설명을 들으며 발전한 학교의 위상에 자부심을 느꼈다.



조지훈 문학관 탐방 ...

- 일시 : 2019년 5월 5일(일)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참으로 오랜만에 교과서에서 배운 승무 시 첫 소절을 보니 가슴 설레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평소 흠모해 마지않았던 은사지훈 조동탁, 조지훈 문학관 탐방은 어린이날 하루 동안에 이뤄졌다. 새벽같이 일어나려고 잠자리에 들었던 몇 번씩 깨어나 다시 잠들기를 반복한 후 아침 공기가 상쾌한 이른 새벽차를 타고 모임 장소에 가는 초로의 우리들은 아직 장년이었던건만 들뜬 마음은 어린이들과 같았으리라. 그때까지 따뜻한 찰밥과 곁절이 김치로 아침을 먹으면서 출발하는 두 대의 버스에 경영64 머스마들 열여덟



○ 학년별 소식

명은 한사람도 착오 없이 전원 탑승하여 72명중 1/4 단과대 최대인원이 참석하였다. 참고로 올해 경영64의 참석 패거리는 4월 27일 경영대 교우회 주최 모교 걷기대회 때였다. 64동기 27명 최대인원 참석 연속 달성이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선들바람이 옷깃을 스며들어 기분 좋은날. 55년 지기 동기들과 격의 없이 어깨를 비벼대며 대화를 나누고, 경북영양의 주실마을을 거니는 즐거움이라니 한번쯤 와봐야 하는 명소를 정말로 운 좋게 방문한 것이다. "흰 구름에 싸여 십리길 높은 고개를 넘어서면 마을로 가는 작은 길가에 보리밭이 바람에 흔들린다." 보리밭 대신 철쭉과 신록의 연초록 여린 잎들의 상큼한 내음이 우리를 맞아 준다. "구름 속에 들어가 아내랑 발을 매면 늙은 아내도 이빠비네. 비 온 뒤 앞개울 고기, 아이들 데리고 낚는 맛을 자네 태고 적 살림이라고 웃을라능가." 산자락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는 기와집들 앞에 맑은 냇물이 흐르고 그 너머에 고만고만하게 솟아있는 붓봉과 연적산에 구름이 휘감고 있는 산골 마을은 내 고향에 찾아온 것처럼 포근하고, 깊게 파 갈아엮어진 부드럽고 기름진 논흙을 손을 넣어 주무르고 싶은 곳이다. 비록 늦었지만 이곳을 찾아 은사님 지훈을 어찌면 더 깊이 알아볼 수 있었고 골목길, 뒷산 공원 지훈 문학 축제가 열리는 마을 앞들은 시에서 말하는 무대였고 지훈 선생 선대들의 나라사랑을 이어 받으신 정신을 이렇게 쓰셨다. "너의 착하디착한 마음을 짓밟는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라. (중략) 병든 세월에 포용되지 말고 너의 양심을 끝까지 소인小人의 칼날 앞에 겨누라. 먼저 너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저항하라. 사특한 마음을 고발하라. 그리고 통곡하라." 4.18. 탐문 - 〈自由! 너 永遠한 活火山이어〉 邪惡과 不義에 抗拒하여 壓制의 사슬을 끊고 憤怒의 불길을 터뜨린 아! 1960年 4月 18日! 天地를 뒤흔든 正義의 喊聲을 새겨 그날의 噴火口 여기에 돌을 세운다. 오다가다 한두 잔 마시는 막걸리에 부추 부침개와 북어무침, 산나물 안주를 거저 먹도록 배려한 동문이고 조지훈 증가손인 동문 덕에 거나하지 않아서 적당한 취음도 나을 만 했다. 산나물 비빔밥과 함께한 반주의 에피타이저로 탐방의 피로를 풀고 나오다 들린 우리나라 최대며 最古 민가인 이상룡 국가 원수와 열한 명 독립유공자 배출 성지인 임청각을 방문하여 빼어난 한옥 구조의 아름다움과 설계를 보고 내친김에 안동 도산서원까지 보조를 맞춰 걷다가 출출한 배를 안동찜닭과 맥주, 막걸리, 소주로 채우고 귀경 길에 오를 우리는 석양에 저무는 해를 미처 보지도 못한 채 초로의 뒤편길을 언뜻언뜻 느끼며 동기들과 하루를 속절없이 보내야 했다. 또 다음날을 기약하고

즐겁고 유쾌한 경영64 골프회 (골프회장: 김동훈) ...

고대경영64'골프회는 1998년 4월에 창립되어 23번째 이어온 골프동호회로서 지금은 매월 3월 월요일 경기도 여주 소재 아리지CC에서 4개조 16명이 참가하여 우의를 다지고 있다. 그날 우승자는 공동우승자로 성기남, 안덕수, 김장수 총 3명이다. 사진은 2019년 3월 개막식 모습이다.



68 (회장 김천수)

서대문 안산둘레길 걷기행사 ...

- 일시 : 2019년 4월 20일(토) 저녁 7시
- 걷기코스 : 안산둘레길을 약 2시간에 걸쳐 약 27여명의 교우들이 참가
- 상품 후원 : 신동원(경영)이 타월을 후원함
- 뒤편이 : 독립문역 근처 동영갈비에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치름



69 (회장 이재선 / 총무 조현룡)

조익순 은사님 마지막 모시기 ...

우리 69학번 동기들은 그간 은사님에 대한 건강염려로 많이들 문병 왔지만, 특히 조현룡 동기는 지난 수 년 동안 매일, 매시 은사님 주변에 매달려 모셔 왔다. 외국에 나가 있던 은사님의 장남 조낙양 박사 이상으로 은사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다. 간병, 문병 외에도 수시로 식사 대접하고 용돈도 드려 왔으며 특히 금년 3월 8일 69석영회 봉피양 신촌 단합대회 때 거금 1백만원 회사하여 은사 모시기에 귀감이 되고 있다.



69학번 고대입학 50주년 기념행사 참여 ...

- 일시 : 2019년 6월 13일 (목) 16시 ~ 야간
- 내용 : 캠퍼스 투어, 만찬, 축하공연

이재선 동기회장을 비롯하여 경영대 69학번 약 20명의 동기들이 참여하여 타 학과 대비 경영과 동기들의 결속력을 자랑하였다. 한편 이날 동기들은 50년 전에 거닐던 때와 사뭇 달라진 교정 속에 옛날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때를 회상하며 감회가 새로웠다. 정성들여 차린 만찬을 들며 축하공연 열기 속에 맘껏 회포를 풀었다.



고대입학 50주년 기념총회 ...

- 일시 : 2019년 6월 17일(월) 8:00 ~ 18일(화) 18:30
- 여정 : 서울 - 평창 허브나라 - 청태산 휴양림 및 숙박 - 횡성 호수길 - 국순당 - 고센농원(남양주)
- 총회 : 횡성축협 한우프라자 만찬, 이재선 회장 6선
- 여행 참가 인원 : 17명



조익순 은사님 추모모임 ...

- 일시 : 2019년 8월 9일(금) 점심
 - 장소 : 이태원 운정
 - 참석 : 조익순 교수님 장남 조낙양 박사님, 66학번 김영환, 69학번 김은영, 조현룡, 74학번 구자형, 김동원 전 경영대 학장, 김재욱 경영대 학장, 김종혁 경영대 부학장
- 고 조익순 교수님 49재를 지내고 은사님을 추모하기 위하여 김영환 교우님이 운영하는 식당 '운정'에서 모임을 가졌다.



월례산행 ...

- 3월 25일(월), 청계산, 시차별 3개 코스 - 뒤풀이 식당에서 합류하였다.
- 4월 22일(월), 청계산, 시차별 3개 코스 - 뒤풀이 식당에서 합류하였다.
- 5월 20일(월), 청계산, 시차별 3개 코스 - 뒤풀이 식당에서 합류하였다.
- 7월 22일(월), 서울대공원 둘레길 - 뒤풀이 식당에서 합류하였다.
- 8월 26일(월), 서울대공원 둘레길 - 뒤풀이 식당에서 합류하였다.



69학번 주관 2019 고연전 뒤풀이 ...

- 일시 : 2019년 9월 6일(월) 19:00
- 장소 : 장충체육관 근린 평남할머니집
- 주관 : 69석영회, 조현룡 동기

69석영회 총무인 조현룡 동기를 주축으로 69석영회 동기들이 물심양면으로 뒤풀이를 지원하였다. 고연전 농구 경기를 이긴 후 첫 고연전 농구경기를 승리로 이끈 2019년 입학 후배들을 유명한 족발집으로 초대하여 화끈하게 대접하였다.



○ 학년별 소식

73

(경영회장 현기춘 / 경영총무 유장근)

경영73 단체 연극 관람 ...

• 일시 : 2019년 7월 31일(수) • 장소 : 코엑스 아트홀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 동기들은 시원한 장소에서 오랜만에 모였다. 부부 10쌍을 포함해서 모두 21명이 코엑스 아트홀에서 '작업의 정석'이라는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서였다. 젊은 남녀가 서로 작업을 거는 방법을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내용이었다. 잠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서 좋았다. 단체관람이라 입장료도 엄청 할인이 됐다. 즐겁게 연극 관람을 마친 후 근처 식당에서 샤브샤브를 먹으며 동기들 간의 회포를 풀었다. 부부가 참석한 문화 활동이라 좀 더 의미 있고 즐거웠다.

유장근 동기의 세 번째, 산티아고 순례 ...

유장근 동기 부부는 세 번째 부부 산티아고 순례에 도전해서 성공리에 마쳤다. 부부는 2011년 봄에는 '프랑스 길' 800Km, 2016년 가을에는 '북쪽 길' 1,000Km 그리고 금년 5, 6월에는 '은의 길' 1,200Km를 걸었다. 특히 이번 여정은 총 52일 동안 하루에 약 25Km를 걷는 힘든 여정이었다. 한 번도 힘든 여정을 세 번씩이나 다녀온 부부의 도전정신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74

(경영회장 조철래 / 사무총장 구자형)

경영74 남산둘레길 걷기 ...

• 일시 : 2019년 6월 1일 (토) 9시 30분

지난달처럼 경영74 동기들은 대한극장에서 모였다. 6월달에는 자녀들 결혼시키는 동기들이 많아서인지 조철래 회장과 구자형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전 달보다 적은 인원인 7명의 동기들이 모였다. 시간이 되자 우리들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남산 한옥마을로 올라가서 남산 순환도로로 들어갔다. 날씨가 매우 푸르고 청명해서 동기들 모두 기분이 좋아보였다. 남산 둘레길을 한참 트레킹하고 있는데 남산 숲길 힐링트레킹을 하지 않겠냐는 남산 숲 해설사의 제안에 우리들은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여 남산 숲길 힐링트레킹에 참여하기로 했다. 간단한 준비운동에 이어 일정한 시간에만 개방되는 남산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여러 가지 숲속 식물들의 자연현상에 매료되는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힐링을 동기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다.



경영74 정기모임 ...

• 일시 : 2019년 7월 6일 (토)

아차산 등산 후 구자형 경영74 동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광장동 어느 음식점에서 경영74 정기모임을 가졌다. 회장선임이 있었는바 현 조철래 회장이 새로운 2년 동안 우리 동의회 회장연임 건이 동기들의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준학 명예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캐나다에서 참석한 이이희 동기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특별히 조군환 제1수석과 장항덕 제2수석이 오늘의 식사비용을 부담했다. 다시 한 번 조철래 동기회장의 연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주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경영74 수원화성 둘레길 걷기 ...

• 일시 : 2019년 8월 24일 (토)

오후 4시에 경영74 동기들은 서울에서 사당 혹은 양재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화성행궁 앞에서 반갑게 조우했다. 지공거사가 되어 입장료도 면제가 된 동기들이 대부분이라 이제는 입장료를 특별히 건지 않아도 되어 사무총장인 구자형은 번거롭지 않아 편했다. 수원화성은 수원의 중심에 위치했고, 길이가 약 5.7km로 성곽을 따라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효심과 애민사상이 지극했던 정조대왕의 숨결을 따라 성곽을 천천히 걸으며 토목건축의 백미를 보여준 정약용의 빼어나게 특출난 과학성에 동기들은 감탄하여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수원에 살고 있는 김지섭 동기의 자상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수원화성을 여유롭게 거닐었다. 특별히 축조상황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에 의거하면 1975년부터 보수, 복원하였으며 1997년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 되었다고 한다. 화성행궁을 다 둘러보고 수원의 유명한 통닭집에 들러 맛있는 통닭에 소주, 맥주를 마시고, 2차로 어느 유서 깊은 설렁탕집에 들러 수육과 소주, 맥주, 막걸리를 함께 마시면서 정담을 나누다보니 시간가는 줄 몰랐다. 다음 날들이는 남한산성과 위례마을 걷기로 결정하였는데 너무나 기대가 된다.



74

(무역회장 이윤우/ 무역총무 이왕근)

무역74 골프모임 ...

• 장소 : 신라CC

4월 17일 및 6월 20일 신라CC에서 3팀 12명이 골프모임에서 갈고닦은 솜씨를 발휘하였다. 2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골프모임은 매우 활성화 되어 항상 참석인원이 12명을 넘어서는 우리 동기의 최대 동호회 모임이다.



무역74 춘계야유회 ...

• 일시 : 2019년 4월 27일(토)

• 장소 : 한양도성길

동기 19명이 참석하였고, 창의문에서 출발-북악산 정상-숙정문-삼청공원으로 내려오는 길을 2시간 30분 정도 걸었다. 북악산 꼭대기까지 가는 길은 꽤 가파른 계단길이지만 봄날의 은은한 아카시아 향을 벗 삼고 역사와 문화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황재연 동기의 '한양도성에 얹힌 조선역사 해설'을 들으며 모두 무사히 산행을 마쳤다. 삼청공원 근처에 있는 식당 다락정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앞으로도 건강히 자주 만나길 다짐했다.



무역74 당구모임 ...

우리 동기들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정기적인 당구모임을 갖는다. 동기 10여 명이 참석하는데 점점 회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도 있고 처음 발을 들여놓는 친구들도 있지만 잘 어울리고 자주 모이는 동호회다.

무역74 추계모임 ...

• 일시 : 2019년 9월 3일(화)

추계 모임을 교대 역 부근에 위치한 식당 '영덕집'에서 가졌다. 우리 동기 20명이 참석하였고 저녁 식사 후 맥주 한잔하며 여러 동기들의 근황을 묻고, 건강을 기원하며, 우정을 나누는 훈훈한 자리였다.



○ 학년별 소식

76 (회장 전운성)

무역76 정기모임 ...

• 일시 : 2019년 5월 29일(수)

무역76 동기모임은 2개월마다 한 번씩 시내 식당에 모여서 동기들 간의 우애를 다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모임 때마다 20명~50명의 동기들이 참석하여 다른 학과의 동기들이 매우 부러워하는 모임이 되고 있다. 5월 29일 모임은 남성역 근처 '김명자 당진 아구·동태집'에 모여서 식사를 마치고 2차는 근처 찻집으로 옮겨 동기들의 최근 동향과 가족문제 그리고 건강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7월 13일 유승훈 동기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 하는 것으로 7월 모임을 대신 하였다. 아울러 무역76 동기회는 당구를 좋아하는 동기들끼리 당구모임을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79 (회장 서학석 / 총무 오성호)

79경영골프회 (79KUPGA) ...

• 일시 : 2019년 4월 21일(일) 12:40~17:30 • 장소 : 일동레이크CC

서울에서는 이미 피고 진 개나리와 진달래, 그리고 벚꽃이 떨어지는 가운데 포천 일동면에는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이 어우러져 무리를 지어 뿔내고 있었다. 오전에는 하늘에서 봄의 생명을 움돋게 하는 물조리개가 지나갔고 동기 19명은 일동레이크에 모여 우정을 다지는 백구의 향연을 도모했다. 오후부터 불기 시작한 춘풍은 시렸던 가슴을 녹이며 어려웠던 과거를 잊게 하였다. 우승엔 2오버의 양희창, 메달리스트엔 5오버의 서학석, 준우승엔 8타를 친 김성태, 다파상엔 78타의 신동익, 다보기상엔 김정태, 니어리스트엔 백종일, 롱기스트엔 송상호, 행운상엔 오성호가 수상했다. 지난 겨울동안을 훌륭하게 보낸 정춘돌의 일취월장이 커다란 모범이 되어 88타를 쳤다. 이 행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고 저녁식사까지 찬조해준 부회장 신동익 동기에 감사 인사드리며 우승상품을 위해 특별히 찬조해준 골프회장 한병로 동기에 감사드린다.



5월 정기모임 ...

• 일시 : 2019년 5월 20일(월) 18:30~21:30 • 장소 : 여의도 남도한정식

반가운 동기들의 악수와 웃음소리 가운데에 만남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우렁찬 목소리에 다들 즐거워했다. 서학석 회장이 나서서 건배사를 하며 올해의 돌로미테, 내년 초의 EBC트래킹, 내년하반기에는 이집트, 내후년에는 아프리카 남아공과 빅토리아 폭포를 목표로 움직이자고 선언했다. 79경영친선축구대회 추진위원을 대표하여 이상현 동기가 나서서 학창시절 3년간 학번축구대회에서 우승했던 기분을 살리는 소풍이 되는 자리를 6월 1일 모교 녹지운동장에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민경섭 동기는 즉각 친선축구대회 후원금으로 일금 100만원을 쾌차하겠다고 선언했고 서유창 동기는 독일에 수출하는 여성건강용 화장용품을 가지고 와서 동기들에게 나눠줬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친선축구대회 ...

• 일시 : 2019년 6월 1일(토) 16:00~18:00

• 장소 : 고대 녹지운동장(의대 뒤편 화정체육관 옆)

푸른 6월의 첫날. 학창시절 암울했던 정치사회의 상황 속에서도 꿈을 키우고 낭만을 즐기고, 한편으로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변민하던 시절. 그나마 축구와 농구를 좋아하며 대운동장을 누빈던 때를 회상하며 작년에 이어 경영79가족 친선축구대회를 가졌다. 작년보다 많은 동기들과 가족들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그 즐거움을 더했다. 친구들과 2세들을 반반으로 섞어서 두 팀으로 만들어 경



기했다. 전반, 중반, 후반의 3세트를 15분씩 뛰고 나니 해는 뉘엿뉘엿 기울고 3:1이라는 스코어보다는 젊음의 기상을 되살리고 20대 젊은 2세들과 함께 했다는 데에 의미를 두었다. 옆의 화정체육관에서는 유명가수의 공연으로 대기 중인 관객들이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으리라. 뒤풀이로 찾은 고모집은 학창시절과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아있고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를 가족들과 함께 함으로써 변함없는 동기들의 우정을 한 번 더 가슴속에 깊이 새겨둔다. 행사를 위하여 100만원의 거금을 쾌척해준 민경섭 동기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장소확보를 위해 애써준 김희천 동기와 기획하느라 수고한 이상현 동기에게 감사드린다. 포항에서 올라온 강득상 부자, 전주에서 올라온 이대우 부부,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중인 박수완 부부, 전 가족을 동원한 강영순 부부와 자녀, 예비사위와 딸을 참여시킨 서종산 동기 모두 축구선수로 뛰게 한 김택곤 부부, 신혼살이에 폭 빠져있는 장민기 부부, 모처럼 즐거운 자리에 함께한 박병근 부부, 전년에 이어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이상현 부부 그리고 아들과 아들 친구들을 동원하여 젊은 분위기를 흠뻑 살린 오성호 부자와 박종식, 이승훈, 이일환, 이영태 동기 등 함께한 모든 가족들께 감사드린다.

경영79 돌로미테 트레킹 ...

‘神의 庭園’이라 불리우는 돌로미테!! 누구나 한번쯤은 필히 가봐야 할 버킷리스트에 꼭 등장하는 곳이라. 79동기들 중에서 몇 달 동안 준비한 끝에 12명이 장도에 올랐다. 가이드는 트레킹전문 ‘해초여행’에서 맡아 돌로미테 알타비아 1,2코스를 중심으로 한 하이 라이트 트레킹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맡길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6월 24일

12:20 KE927편에 의지한 채 밀라노 말펜사 공항을 향해 약12시간의 비행에 몸을 맡겼다. 시차가 7시간인 덕에 당일 17:30쯤 도착하여 베로나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 후 취침했다.

6월 25일

베로나 시가지와 아레나 광장을 관광하였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며 원형극장을 중심으로 변화한 거리는 베네치아와 견주는 명품도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부에서 올라오면서 쓴 단테의 신곡은 성직자, 권력자, 부자들의 부도덕함과 부패함을 풍자한 것으로서 이탈리아 글과 말의 표준이 됨과 동시에 중세시대를 건너내는 르네상스 시대를 연 것이라 하여 놀라웠다. 오후에는 돌로미테 지역 최대의 산악마을 이자 2026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코르티나담페초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트레킹을 위한 준비를 했다.

6월 26일

오전 식후 첫 트레킹코스는 트레치메 디 라바레도 라운딩 트레킹. 가는 길에 있는 해발 1700m의 미주리나 호수를 거쳐 아우론 조산장(2320m)으로 이동 후, 로카텔리, 라바레도 산장을 거쳐 원점회귀 약 9.5km의 트레킹 후에 숙소로 돌아왔다. 트레치메는 해발 3000m가량의 봉우리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양빛으로 물든 황금빛 그림자로 유명한 돌로미테의 심장이라 한다.

6월 27일

오전은 라가주오이 트레킹. 1차 세계대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라가주오이 산장(2752m)까지 케이블카로 올라 오스트리아군과 이태리군의 대치국면을 상상하며 눈이 아직 녹지 않은 길을 따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산군(山群)을 보며 팔자레고로 하산하여 반대편 산을 곤돌라를 이용하여 5개의 탑이라는 친퀘토리에 올라 일부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벗어나 즐기고, 일부는 1시간가량을 친퀘토리 봉을 돌았다. 오늘은 9.3~12.3km정도 워킹했다. 트레킹 종료 후 캄피텔로 디 파사로 이동하였다.

6월 28일

돌로미테 최고봉 마르몰라다(3343m)트레킹 하는 날. 숙소에서 10여분 거리의 카나제이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페콜(1899m)에 올라 콜디로씨(2349m), 프레달로라산장(2399m)를 거쳐 페다피아 호수(2049m)에 이르는 8.9km구간을 아름다운 초원과 야생화를 즐기면서 트레킹하고 식후에는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푼타로카(3309m)봉에 올라 마르몰라다 빙하를 조망하였다.

6월 29일

사스 포르도이에서 보에 산장까지의 길이 통제되어 일정변경을 하여 페레그리노 트레킹으로 대체하였다. 아름다운 초원과 초원 위의 말과 소, 멋진 하늘과 구름을 사진에 담는 하루가 되었다. 점심식사 후 이동하여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사스 포르도이의 마리아산장(2950m)까지 올라 94세까지 일생을 돌로미테 관광사업에 투신한 마리아 피아즈를 기렸다. 트레킹 종료후 오르티세이로 이동하였다.

6월 30일

조식후 세체다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이동하여 소피에 산장(2392m)에 올라 콜라이저까지 해발2400~2100m의 8km 트레킹을 멋진 하늘과 멋진 땅과 멋진 구름과 멋진 산군(山群)과 멋진 동기들과 함께 하였다. 일찍 숙소로 돌아와 근처시내를 구경하며 주민들의 사는 모습들도 구경하였다.

7월 1일

트레킹 마지막 날. 알페디시우 지역은 해발 2000m의 알프스 최대 목초지. 케이블카를 타고 콤파치(1850m)에 내려 파노라마산장(2009m), 알페 디 티레스산장(2440m), 몰리그노 산장(2054m)을 거쳐 파노라마 산장으로 돌아나오는 13.5km의 트레킹. 점심을 먹는데 갑작스레 우박이 떨어지며 머리를 두드렸다. 파노라마 산장근처에 부인을 두고 온 손영태가 가이드보다 먼저 출발하고자 하여 5명이 먼저 출발했으나 길을 잃는 바람에 1시간가량을 오버하여 지나쳤다. 가는 길에 있던 산장에 길을 물어 5시에 마감하는 곤돌라를 타고 급히 내려와 살트리아에 도착하여 가이드한테 연락, 30분을 기다려 합류하여 다음 숙식지인 로베르토로 향했다. 우리팀은 트레킹 내내 화창한 날씨로 보내고 마지막 날 비를 맞은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다. 다음날부터는 1주일 내내 비 올 예정이라 한다.

7월 2일

조식 후 이태리 귀족들의 휴양지 시르미오네에서 아름다운 방하로 인해 만들어진 이태리 최대의 바다 같은 가르다호수 주변을 유람하였다. 선박 왕 오나시스의 연인이기도 했고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였던 마리아칼라스가 살았던 별장과 로마시대 귀족들이 썼던 유적도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다. 오후에는 밀라노로 이동하여 관광가이드의 설명으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업적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7월 3일

오늘은 밀라노에서의 자유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도 밀라노의 상징인 두오모 밀라노 대성당을 찾아갔다. 온갖 성인의 조각상들이 성당의 내외부로 가득하여 모두가 의미 있는 표정으로 새겨져 있었다. 하늘을 찌를듯한 모든 첨탑에는 성인 135명의 조각상이 있었다. 성당주변은 시가지로서 각종 명품점들이 즐비해 있어서 명품의 나라 이태리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밤 비행기에 의지하여 귀국길에 몸을 실었다. 인생의 즐거움이란 좋은 동기들과 함께 버킷리스트에 있는 곳을 찾는 것이다. 지구에 소풍 온 짧은 시간 가운데에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을 온전히 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그나마 조금이라도 실현되면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트레킹을 통하여 느낀 것을 정리해본다.

첫째, 돌로미테는 '신과 인간의 조화'가 배어 있었다. 히말라야 트레킹에서는 신의 웅대함과 웅장함에 범접할 수 없는 경외로움을 느꼈다면, 돌로미테는 해발 2200m까지는 인간의 영역으로써 아름다운 초원에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반면 2200m를 초과하는 지역은 신의 영역으로써 그들만의 해학을 누리는 공간으로 보여졌고, 상호 침범을 적절하게 억제하는 모습으로 조화로이 비춰졌다. 둘째, 기원전후를 나누는 기준선에 서 있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존경심이다. 얼마나 위대하면 그의 정신이 금세기의 모든 문명과 문화에 개입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서양문명의 태동이 된 그리스·로마문명과 더불어 철학, 언어, 수리, 건축 등의 학문적 업적과 위대한 건축과 예술의 경지는 르네상스를 창조해내기에 충분했다고 보여졌다. 넷째, 다녀온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몽블랑, 마테호른, 융프라우 등을 다녀왔지만 돌로미테가 최고다"라고 할 정도로 시설과 편의와 트레킹코스도 최고였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케이블카와 스키리프트가 많긴 했지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어 호텔 수돗물을 식수로 먹어도 무방하고 트레킹 도중에 나오는 지하수마저도 훌륭한 식수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많이 부러웠다.

7월 정기모임 ...

• 일시 : 2019년 7월 15일(월) 18:30 • 장소 : 신논현 인동상회

저녁 6시 반을 전후로 동기들이 모두 모였다. 오랜만에 찾은 인동상회에서 우리 동기 약 40명은 여전히 가게 전체를 장악하였다. 여름이라서 따로 예약해둔 해신탕, 세꼬시와 함께 마시는 막걸리와 소주, 맥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더구나 돌로미테 트레킹을 다녀온 동기들이 테이블마다 한두 명씩 앉아 있었기에 애깃거리의 풍성함이 달랐다. 적절한 시점에 나온 서학석 회장은 매년 버킷리스트를 채워나가는 행복을 동기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작년의 ABC와 MBC트레킹, 올해 돌로미테 트레킹에 이어, 내년에는 EBC트레킹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동기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한 올해와 내년에 걸쳐있는 회갑여행도 많은 동기들이 함께하며 골프, 등산, 낚시 등을 즐기고 중후한 중년으로서의 자리매김에 동참하자고 하였다. 이어서 축구회(FC79)발족과 관련하여 일어난 회장내정자인 이상현은 두개의 운동(사회운동+체력운동)을 합쳐서 친구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발돋움할 것을 다짐하였다. 골프모임에 나오다가 처음 나온 김성태 동기는 앞으로 전체모임에도 꾸준히 나오겠다고 하였고, 일본에서 온 손영태 동기는 몇몇 동기들만 어울리다가 동기모임에 처음 왔지만 모두가 변하지 않은 40년 전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에 놀라고 반가워하였다. 7월 21일에 마석에서 이마트 편의점을 개업하게 되는 김명국 동기의 인사에 친구들의 축하와 발전을 기원하는 우레 같은 박수가 이어졌다. 가게가 마감되어도 자리에서 일어나는게 아쉬워 "2차로 맥주한잔 데!"를 외치는 동기들과의 어울림으로 날은 저물어갔다.



회갑기념 여수여행 ...

• 일시 : 2019년 8월 25일(일) ~ 2019년 8월 27일(화)

올해부터 회갑을 맞는 동기들이 많은 덕에 올해와 내년 2년간 회갑기념행사를 갖기로 하고 1차로 2019년은 전남 여수를 목적지로 정했다.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동기들을 제외하고 39명의 동기들이 참여했다.

8월 25일

07:10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고속도로로 달리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수학여행을 가는 어린이들처럼 즐거움에 젖어 동기들과 담소하면서 도착한 곳은 여수의 '늘푸른식당'. 예약해 놓은 갈치조림과 돌계장 백반을 먹은 후, 한려수도를 순회하는 '美男크루즈船'을 타고 한시간반동안 섬과 어우러진 바다를 구경하였다. 디오션리조트에 짐을 풀고 '백천선어마을'에서 서학석 회장이 협찬한 민어회를 중심으로 한 푸짐한 저녁식사를 했다. 이미 회갑이 지난 동기들의 축사가 결속하게 이어졌다. 식사 후 '밤바다케이불카'를 타고 자산공원에서 돌산공원까지 왕복하며 여수의 야경에 심취해 보았다. 몇몇 동기들은 낭만포차 등에서 젊음을 발산코자 하여 좀 더 늦게 숙소로 들어왔지만, 다음날의 스케줄을 위해 일찌감치 취침하였다.

8월 26일

새벽 4시에 배낚시(돌문어잡이)팀이 출발하여 오후 두시까지 잡은 돌문어 4마리로 점심을 때우고 숙소로 돌아왔다. 별로 잡히지 않아서 손맛을 느끼지 못하게 못내 서운했다. 새벽 6시에는 골프팀들이 일어나 디오션CC로 출발, 아침바다를 보면서 백구의 향연을 즐겼다. 곳곳에서 보는 바다와의 어우러짐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7시 30분에는 등산팀이 순천의 백운산으로 가서 해발 1,220정상을 찍고서 여유롭게 하산하였다. 차가운 계곡물에서의 알 탕으로 마지막 여름을 보냈다. 저녁은 디오션호텔 바비큐 코너에서 전남 드래곤즈 사장 초청명 동기가 협찬한 고기, 야채, 술로 배를 채웠다. 밤이 되면서 빗방울이 굵어지고 다음날 스케줄을 걱정하며 또 하루를 마무리했다.

8월 27일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와는 달리 강우량이 많지 않아 새벽 5시에 골프4팀 16건각들은 출발하였고 새벽 6시에 18명의 트레커들은 금오도 트레킹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한 후 돌산 신기항으로 갔다. 9시 10분에 출항하는 배를 타고 금오도 여천항에 내려 예약한 버스를 타고 학동까지 가서 직포까지 가는 비렁길 제3코스를 트레킹하였다. 비렁다리, 매봉전망대, 갈바람통전망대 등 약3.5Km의 비가 흠뻑리는 위험한 바닷가 벼랑길을 조심스레 걸었다. 신기항으로 귀항하여 골프팀과 만나서 근처의 유명한 '남매식당'에서 자연산 장어탕, 봉장어구이로 싹쓸 배를 채우고 오후 4시에 서울로 출발, 오후 8시 30분에 교대역에 도착하여 2박 3일의 회갑기념여행을 마감했다.

이 행사를 위해서 후원을 아끼지 않은 초청명 사장과 현지의 정구호 부장, 곽동현(경영82)원장, 여수막걸리 40통을 후원해주신 여수주조공사의 임용택 선배님께 특별히 감사인사 드린다. 후원해주진 정몽진 KCC회장, 정운창 해창재단 이사장,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서학석 동기 회장, 이주배 대표, 장치명 대표, 김석호 대표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해외출장으로 참석 못한 최계수 대표의 골프우산 제공도 감사드린다. 그대들 덕분에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 내년에는 더 멋진 회갑행사가 되길 기원해본다.



80

(회장 신창윤 / 총무 이봉기)

춘계 आयु회 ...

• 일시 : 2019년 6월 15일(월) 오전 11시 ~ 오후 9시

올해는 세종시에 위치한 베테리파크에서 총 55명의 동기부부들이 참석하였다. 리무진 관광버스 2대로 이동하면서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지난 추억과 정담을 나누며 베테리파크에 도착하니 동기인 이선용사장이 직접 1일가이드가 되어 식물원과 동물원의 명소와 남다른 원에 지식을 동기들에게 전달하였다. 관람 후 클래식 간이 음악회 및 가든 바비큐파티를 가지면서 동기들 간의 우정과 건승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만끽하였다.



○ 학년별 소식

골프회 소식 ...

① 골프회는 2019년 4월 16일(화), 6월 18일(화), 9월 17일(화) 지산CC에서 월례회를 진행하였으며 매 월례회 마다 4~5팀 정도의 동기들이 참가하여 골프로 건강과 우의를 다지고 있다.

② 월례회와 별도의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매월 청평 마이다스밸리CC에서 부부골프 모임을 개최하고 있으며 매월 4~5팀이 참가하여 우정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중이다.



호산회 소식 ...

호산회는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는 정기산행을 매월 이어가며 동기들의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2019년 4월12일~13일 1박 2일 광주 무등산 산행을 하여 지방에 있는 동기들의 참여 기회를 만들었고 이후로도 5월 18일(토) 청계산, 7월 13일(토) 북한산, 8월 10일(토) 관악산 산행을 하였으며 매월 1회 정기 산행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81 (회장 김현수 / 사무총장 신동훈)

삼화회 4월 소식 ...

- 일시 : 2019년 4월 16일(수) 저녁 6시 반 • 장소 : 역삼 중식당 대려도
- 81학번 동기회 김현수 회장(SC신용정보 대표)외 10명 참석
- 강남구에 사업장이 있는 동기 3인 - 배홍기(KPMG 부대표), 박준보(우리은행 삼성센터장), 김상운(태경회계법인 대표)가 식사대금을 지불하였다.



고글회 골프대회 ...

• 일시 : 2019년 5월 1일(수) • 장소 : 자유CC
고글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메달리스트-양춘만 76, 신페리오우승-하홍규 71.2, 신페리오 준우승-오동기 71.6, 다비디상-이혁진 3, 다파상-이석원 12, 다보기상-박현국 12, 롱기스트-김영민 270y, 니어리스트-박성용 1.1m, 오리상-신동훈, Gross행운상-박상원, Net행운상-김윤창, Gross노력상-이상진, Net노력상-정용원, 행운상 그 외 10명이며 9월 1일(일) 고글회 골프대회가 자유CC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40여명정도 참석을 예상하고 있다.



삼화회 5월 소식 ...

• 일시 : 2019년 5월 21일(화) 점심 • 장소 : 여의도 지리산&예술가
5월의 따뜻한 햇살아래 조홍균(한국은행 국장)동기가 스페인산 레드와인을 찬조하였고 건배사를 대신하여 괴테의 5월의 노래를 시로 읊어 모임의 격조가 한결 올라갔다. 또한 토러스투자자문 대표 김영민 동기가 오랜만에 모임에 참석하여 요즘 주식시장과 추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주어 분위기를 사로잡았고 신한캐피탈 대표이사 허영택 동기가 요즘 대표를 맡고 나서 회사가 잘 되고 있다하여 다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덕 아니겠냐는 덕담을 해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삼화회 6월 소식 ...

• 일시 : 2019년 6월 18일(화) 점심 • 장소 : 광화문 산채향

더덕으로 만든 요리로 유명한 광화문 산채향에 6명의 동기들이 모여 서로의 근황 얘기를 하고 모처럼 참석한 중앙일보 기자 고현곤 동기의 세상 돌아가는 뒷이야기를 들었다. 이광식(SC제일은행 전무), 박학래(티맥스소프트 대표)등이 참석하였다.

84

(경영회장 윤영원 / 경영총무 이순규)

경영84 팔사랑 : 수리산 등반 ...

- 일시 : 2019년 5월 18일(토)
- 등반코스 : 성결교신학대학-관모봉(426m)-태을봉(488m)-슬기봉(451m)-수암봉(395m)-안양 병목안 시민공원
- 산행 거리 및 예상 시간 : 약 8km, 4~4.5시간 (휴식시간 포함)

팔사랑회는 안양 수리산에서 올해 두번째 등반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84학번 동기 산악회 산악대장을 맡고 있는 김홍석 교우의 초대로 다른 학과 교우도 참석하였다. 등반은 명학역에 집결하여 관모봉, 태을봉, 슬기봉, 수암봉을 거쳐 안양 병목안 시민공원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한국인 최초로 중국사회과학원에서 회계학 박사 받고 중국세법실무를 출판하기도 한 삼화회계법인 영남본부장 김준호 동기는 대구에서 서울로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올라온 외중에 점심식사 장소에 깜짝 등장하여 식사대금까지 후원하며 훈훈한 동료애를 보여주기도 했다. 팔사랑 산악회는 하반기에도 다른 학과 교우도 계속 참석하기로 하였고,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84 팔사랑 : 제주 워크샵 ...

• 일시 : 2019년 6월 15일(토) ~ 16일(일)

2018년 팔사랑의 제주 워크샵 참석자들의 호응이 좋아 2019년 6월 15일과 16일에 걸친 팔사랑 워크샵은 참석자가 19명으로 늘었다. 첫날은 전원이 교래 자연휴양림과 절물자연휴양림 트레킹을 즐겼다. 여러 동기들은 나중에 가족들과 다시 오겠다고 할 정도로 천연 원시림 절경에 감탄하였다. 저녁식사는 문상철 전 팔사랑 회장(현 교우회 감사)의 후원으로 동갑내기 사촌누이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제주흑돼지구이와 전복구이, 전복죽으로 호사를 누렸다. 식사 도중 현 윤영원 팔사랑 회장이 문상철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박승국 동기가 운영하는 제주 고평크 펜션에서 지냈는데 마침 청소년 축구 결승전이 있는 밤이라 피곤을 잊고 모여서 결승전을 관전했다. 승리했다면 인생에서 길이 남을 밤이었겠지만 결승전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어딘가! 둘째 날, 12명의 동기들은 세인트포로 골프 경기를 하고, 7명의 동기들은 다랑쉬오름과 월정리 해변의 트레킹으로 또 다른 절경을 감상하였다. 합동사진전을 열기도 했던 강학수 동기는 동기들에게 평생 간직할 사진을 남기고자 단체 사진, 개인 사진을 찍었다. 덕분에 여러 동기들은 모델 체험도 했었다. 박승국 동기는 둘째 날 점심 식사를 후원하고, 김억석, 김진성 동기는 식후 커피를 찬조하여 행사가 풍성해졌다. 밴드에 올라온 사진과 후기를 보고 많은 동기들이 내년에는 본인도 꼭 가겠다고 하여 내년 행사는 더욱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84 팔사랑 : 강남모임 (지회장 : 윤종선) ...

• 일시 : 2019년 7월 17일(수)

지회장 윤종선 동기가 적극적인 참석 독려 전화통화로 오랜 만에 보는 동기들이 많이 나왔다. 회계사이기도 하지만 변호사에 주력하고 있는 임태완 동기, 고대부속병원과 함께 바이오산업에 뛰어든 전상표 동기, 홍콩에서 안식년을 보내는 KAIST 교수 이민우 동기, 삼정회계법인 위승훈, 송해성 동기 등이 근황을 소개했다. 84동기 5명과 함께 사진 전시회를 하는 강학수 동기와 김홍석 등산회장, 박태영 강북회장 등 지회장은 행사를 홍보했다. 84동기들과 라오스에 봉사 활동을 다녀온 정용태, 5월 제주도 트레킹을 다녀온 멤버들을 대표하여 이순규 동기가 경과보고도 했다. 산업은행 강남본부장으로 승진한 정병철 동기, 전문 사모펀드 운용업을 등록한 나섬자산운용 이현우 동기, 제주 고평크 박승국 동기는 현금 찬조를 하여 2차까지 비용을 집행하고도 남아 잔액을 팔사랑 총회 통장에 입금까지 하게 되어 더 풍성하고 훈훈하게 모임을 마무리 했다.



○ 학년별 소식

경영84 팔사랑 : 강북모임 (지회장 : 박태영)

• 일시 : 2019년 9월 4일(수)

팔사랑 강북모임이 여의도에서 열렸다. 모임 장소가 여의도인지라 참석 인원이 아무래도 금융, 회계 관련 인력이 많다. 팔사랑 모임은 편하다. 경륜들이 있어 모임 주관자의 수고와 고민을 아는지라 장소를 왜 이리도 정했는지, 메뉴를 뭘 정했는지, 회비를 왜 이 금액으로 했는지 묻지 않는다. 술을 안 마신다고 하며 강권하지 않는다. 다들 조직과 가정에서의 위치가 있는지라 다음 날 일찍 일어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자리를 파한다. 차를 갖고 온 동기는 방향이 비슷한 동기를 굳이 태워서 간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만남이 오래 지속되면서 팔사랑 회원들의 우정도 깊어 가고, 이해도 깊어 간다.



86 (회장 정경모 / 총무 이영무)

6월 골프회

• 일시 : 2019년 6월 22일(토) • 장소 : 큐로 경기CC

6월의 날씨 치고는 좀 더운 편이었지만 맑은 날씨와 고지대의 상쾌한 바람을 느끼면서 12명의 동기들이 즐거운 라운딩 시간을 가졌다. 라운딩 끝나고 한 잔의 소주로 오늘을 반성하고 다음번의 '줄'버디를 미리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마무리하였다.



7월 등산회(마루회)

• 2019년 7월 6일(토) • 장소 : 예봉산

아직은 견딜만한 더위일거라 생각한 7월초, 예상치 못했던 36도의 폭염 속에서 산행을 시작했다. 날씨도, 예봉산 코스도 만만치 않았지만 모두 건강히 정상에 밟고 산행을 마치면서 우리들의 체력이 아직은 건재함을 느낀 하루였다. 예봉산 코스는 일 년에 한번 정도는 친구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오는 곳인데 아마도 산행의 멋짐도 있지만 산행후의 짬뽕어 탕과 돌미나리전의 유혹을 참을 수 없어서 인듯하다.



10월 두목회

• 2019년 7월 11일(목) • 장소 : 두부마을 종로 빈대떡

금번 두목회는 올해 두 번째 두목회 모임으로 열세명의 동기들이 모여서 편하게 막걸리 한잔하면서 편한 일상 이야기와 다음 마루회와 두목회 일정 등을 점검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오랜만에 참석한 동기와 멀리 홍콩에서 일정 조정해서 참석해준 동기 모두 고맙고 반가운 얼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92 (회장 최강근 / 사무총장 윤선규)

C반 정기모임

• 일시 : 2019년 5월 3일(금) 오후 7시 • 장소 : 신사동 신사머구리

• 참석자 : 강진홍, 김명주, 김영찬, 김태준, 반동현, 윤선규, 이성욱, 이홍석, 장영수, 최강근
2019년 상반기 92학번 C반 정기모임을 총 10명의 동기가 신사동에서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는 특히 장영수 동기 및 김태준 동기가 오랜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이홍석 동기도 멀리 대만에서 와주어 의리를 지켰다.



709 회장 한호석(경영74) / 총무 구자형(경영74)

경영709 신년모임 ...

• 일시 : 2019년 4월 8일(월) • 장소 : 충무로 동방명주

2019년도 연초가 지난지 꽤 되었지만 최근에 70학번대 동기회 회장들의 변경이 많고 봄이라 바빠져서인지 이번 모임에는 단출하게 6명이 모였다. 충무로의 동방명주라는 오래된 중국집에서 모였는데 음식도 푸짐하고 재미있는 대화 속에 서로가 몰입하여 시간가는 줄 몰랐다. 먼저 한호석 709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오늘 모임중 제일 고참인 72학번 김문기 교우의 건배제의에 의거 각자들의 근황을 이야기 하였고, 709모임의 총무이자 구자형 수석부회장이 다가오는 교우회 행사를 소개하며 많은 협조와 참석을 부탁하였으며 모임에 처음 참여한 무역학과 76학번 동기회 회장인 전윤성 교우의 사투리 섞인 재담으로 즐거운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식당 주인이 우리 방에 들어와 마감시간 지났다고 2번째 알리고 서야 겨우 모임이 끝났다. 다음 모임은 6월 10일 저녁 6시 30분 이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각자가 메모하고 헤어졌으며 회장과 총무는 헤어짐이 아쉬워 커피 한 잔하며 못 다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경영709 ...

• 일시 : 2019년 6월 10일(월) • 장소 : 충무로 동방명주

호스트의 사정으로 이번 모임은 특별히 점심 모임으로 아주 적은 경영709 교우들이 단출하게 강남의 어느 중국집에 모여 709모임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호석 경영709 회장은 구자형 경영709 총무에게 709모임 각 학번 동기회장님들과 총무님들에게 앞으로 709모임의 지속여부 및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라도 현행 1년에 6회에서 2회 내지 3회로 축소할 것인지 의견을 취합해 보자고 함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조만간에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709모임의 진로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809 회장 여용동(경영82) / 총무 권태우(무역85)

809 골프회장배 타이거컵 골프대회 (골프회장: 조명제) ...

• 일시 : 2019년 6월 28일(금)

고대경영809산하 809골프회는 809연간행사의 하나로 2019 809골프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신임 조명제 809골프회장과 집행부는 이번 골프대회를 타이거컵으로 명명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흑백호랑이 대결의 장으로 마련하여 단체전 성격의 이벤트로 기획을 하고, 개인 우승자에게는 그린재킷과 순금장식 수제퍼터를 시상품으로 마련하여 행사의 권위와 동시에 긴장과 재미까지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조명제 골프회장장과 여용동 809회장의 메인 찬조 하에 이선용 809초대회장 및 김상연 골프회장 등 80학번 교우들로부터 각 학번별까지 푸짐한 협찬을 받아서 귀가할 때 집에서 칭찬받는 행사를 만들겠다는 골프회장의 공약을 충족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컨셉으로 기획된 흑호-백호 단체전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단체 촬영 시에 검정색을 입은 외부 손님에게도 809골프대회에 참여한 흑호팀으로 착각하고 얼른 오라고 소리를 질러 의도하지 않은 실례를 저지르거나, 흑호팀은 무더위에도 칼라가이드에 맞춰 검정색 티셔츠와 모자를 착용하여 다 함께 더위에 맞서는 단합심을 발휘하는 가운데 자신을 흑호팀으로 착각해 검정옷을 착용한 이정근 교우 덕에 양 팀 숫자가 맞지 않아 한참을 조사한 후 정체가 밝혀져서 모두 한바탕 웃고 의도된 백호팀 이선용 팀 대장의 스파이라는 음모설도 확산되었다. 단체전의 의도대로 흑호-백호 2명씩 구성된 10개조는 치열한 전락 속에서도 오랜만에 싱그러운 그린위에 모인 오래된 선후배간 재미있는 라운딩을 하였고, 그 결과 근소한 차이로 흑호팀이 우승과 최초의 그린재킷의 주인공인 개인 우승은 809의 설립자이기도 한 이선용 교우가 차지하여 809교우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았다. 거의 정기 고연전을 방불케하는 재미와 긴장을 더해준 이벤트라고 입을 모았고, 흑호팀은 우승상금을 809골프회의 발전기금으로 쾌척하는 통 큰 809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재치 넘치는 809의 영원한 막내학번(89)인 이정한 교우의 사회로 시간가는 줄 모르는 뒤풀이와 시상식 속에서 스트레스를 날리고 양손 가득 푸짐한 선물을 들고 귀가하는 날이 되었다. 어느덧 9년여의 전통을 가진 809골프대회도 회를 거듭하면서 더욱 신선한 아이디어가 더해지는 것 같다.



809 문화행사 ●●●

• 일시 : 2019년 7월 27일(토) • 장소 : 리움미술관

고대경영809 교수들은 연간일정 중 문화행사로 리움미술관 투어를 하였다. 809 4기 회장단이 야심차게 기획한 첫 문화행사로 리움미술관 투어날이 다가오자, 여용동회장이 하 집행부는 "미술관 행사에 우리 809교우들이 과연 모일까?", "토요일에 모일까?"하는 우려 속에 고대 경영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문화적 콘텐츠에 관심이 있을지 짐작이 가질 않았고, 더구나 주말 행사라 최소 규모의 행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다. 그런데 웬일로 정해진 시간에 30여명이 와글와글 모여 인사 나누고 약간은 촌스럽게 단체촬영하고, 82학번이 입학 30주년 인연으로 알게 된 불문과 교우의 안내로 도슨트 미술관 투어를 시작하였다. 청자(분청사기)고서화)고려시대이전 미술 순으로 2시간 미술투어를 예상외의 놀라운 관심과 집중력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미술에 대한 관심도 예상외로 높았지만 이 장시간의 투어를 소화해낸 최소 50대가 된 아저씨들의 체력에 한 번 더 놀랐다. 참석자의 간단한 미술관 리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럽미술관과 같이 미술관 자체를 건축예술작품으로 만든 기획력이 인상적이었다.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靑瓷辰砂蓮華文瓢形注子)와 같은 국보와 보물을 다수 보유하는 자부심 표현에 그치지 않고, 고미술관내 로스코, 자코메티와 같이 현대서양미술 중 같은 컨셉의 작품까지 "앗" 싶은 장소에 전시한 큐레이터의 시각이 신선했다. -도슨트의 설명은 항상 진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텍스트로 얻을 수 없는 종합력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오늘의 도슨트 박호선님은 그 부분을 잘 채워주었다. -3층 고서화편에서 르네상스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사실화를 위한 원근법과 명암법과는 철학적 배경으로 비사실화를 위한 부감법이나 화원법을 사용한 동양화 [산시청람도] 및 한국화로의 발전과정은 미술의 배경이 되는 철학의 동서양 차이를 잘 알려주는 설명이었다. 또한 안견-정선-김홍도라는 위대한 예술가 뒤에는 안평대군-안동김씨문중-정조라는 후원자가 있음은 르네상스를 열어젖힌 피렌체 메디치가문의 존재처럼 동서양의 동일성을 알려주었다. 1층 고려관에서 화려한 금으로 장식하는 불교사원은 무지한 백성을 위한 중세시대 말의 고딕양식 성당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음도 공통된다. 미술관에서 나와 85학번들의 식사 잔조와 이선용 809초대 회장 등 주류 협찬으로 풍성한 2차자리가 진행되었다. 서로의 근황을 업데이트하고 문화행사에 대한 리뷰와 향후 두화점(9월 17일), 809회 장기 골프대회(10월 18일) 등에 대한 홍보가 이어졌다. 809가 생긴지 9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번 809문화행사라는 새로운 컨셉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가되어 809모임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더욱 배가 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809공식밴드에서는 이러한 행사를 새롭게 기획하고 진행한 여용동 회장이하 809집행부에게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여러분이 회보의 주인공입니다. It's About You.

교우회보 호상은 여러분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회보에 신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우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회 모임이나 행사 중 사진 촬영이 필요하신 행사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교우님을 알리고 싶을 때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Contact Us

회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TEL 02.922.3762 E-mail kubs@kubs.or.kr

무소유

김진하(상학 66. 시인)

달팽이 한 마리
열흘이 넘어도 꿈쩍을 않는다

이상하다 싶어
살짝 들어보니 이렇게 가벼울 수가

속을 들여다보니 텅 비었다

껍데기만 남겨놓고
몸과 영혼은 떠나버렸다

달팽이는
살아서도 가난한데
죽어서도 무소유를 실천하는구나

달팽이가 바로
부처님의 현신이구나.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를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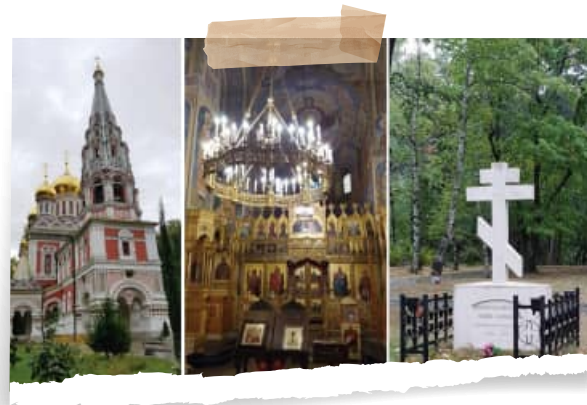
투르노보에서 소피아까지는 두 시간 넘게 걸린다. 산악지대에서 발칸산맥을 거쳐, 불가리아 제국의 수도에서 불가리아 공화국 수도로 가고 있는 중이다. 비속으로 자동차는 달린다. 오른쪽도 왼쪽도 보이는 것은 모두 산이다. 산 속으로 난 도로는 자동차가 넉넉하게 오고 갈 수 있었다. 산이야 아름답지 않는 산이 어디 있겠느냐만, 짙은 나무들은 하늘을 가리고, 풀과 예쁜 꽃들이 함께 어우러져 어두운 곳을 아주 잠깐 스치는 반딧불처럼 반짝인다. 산허리에 걸린 구름은 거두어질 것 같지 않는데 점심을 먹은 후라 졸음이 온다.



안내자는 우리가 들린 트라키아(thracia) 왕국의 수도였던 카잔루크(Kazanluk), 장미마을에서 장미꽃을 따는 인부들이 집시(Gypsy)라 했는데 그 집시마을을 지나가고 있다고 빨리 보라고 재촉했다. 장미꽃 1600송이에서 장미기름 1g을 추출한다니 시장에서 판매되고있는 향수, 비누, 화장품은 장미라는 이름만 포장한 것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꽃잎을 모아 기름으로 제조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전시한 장미 박물관(1969년 설립)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었다. 1만 종류의 장미 중 200종만이 장미기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1907년 설립된 장미연구센터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었다. 해마다 5-6월이 되면 국제 장미 축제가 열려 수많은 여행객들이 모여든다. 관광상품 하나 개발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이어져야 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인도 북부 타지키스탄 고원 지역의 인종을 롬(Rom)족이라 하는데 이들이 집시다.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1871년까지 집시를 노예로 부렸다. 이란과 이라크, 터키 3국 국경지대에 머물고 있는 쿠르드족이 이들과, 그 수가 2,5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2차 대전 당시 히틀러는 쓸모 없는 인종이라 하여 60만 명을 학살했다. 이들은 유목생활에 유래되어 오랜 세월 동안 방랑하는 나라 없는 종족이다. 학교교육도 받지 못해 직업도 없고, 자유를 사랑해

떠돌이 생활로,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해 천대를 받고 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산아래 웅기중기 모여 제법 큰 마을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최고 높은 어른이 있다는 설명에 어리둥절했다. 나는 로마에서 그들에게 카메라를 빼앗긴 적이 있어 그 예쁜 마을을 바라보면서 씁쓸한 기억을 떠올려 보았다.



안내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보여 준다고 어느 한적한 산속으로 들어갔다. 이 교회는 러시아 정교회이고, 러시아와 오스만의 전쟁 때 희생된 군인들의 무덤이 교회 안과 밖에 안장되어 있었다. 교회 뜰에는 많은 군인들이 한 곳에 묻혀 있는 표시로 제일 앞쪽에 십자가가 꽃혀 있는데 이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으면 아무도 묘지라고 알아 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세워진 십자가는 유난히 희게 보였고, 십자모양 밑에 또 다른 모양의 표시가 있어 안내자에게 물었다. 이 십자가는 러시아 정교회에서만 쓰여지며 가톨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맨 위의 바(Bar)는 십자가 명패 예수를 상징하고 아래의 비스듬한 바(막대)는 안드레이 십자가의 형상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는 러시아 기독교 신앙을 전파한 사람(St. Andrew)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람은 무엇을 보든 자신의 마음을 통해 보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마음에 나타난 대로 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행 당시 비가 부슬부슬 오고 몸이 오돌오돌 떨려 빨리 차타고 싶었던 때에는 보이지 않던 그 교회의 모습이 집에 와 사진으로 보니 여러 빛깔의 겉모양과 교회 안에 꼭 메운 아기자기한 형태의 조형물, 유난히 바닥까지 빛을 내려 뿜어대는 상들리에의 신기한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피아(Sofia)에 도착했다. 자동차에서 내린 곳이 알렉산더네프스키(Aleksander Nevski)성당인데 1882년 착공되어 1912년 완공된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다. 꿈처럼 아름답다는 모스크바 성 바실리 대성당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맑고 고운 초록빛으로 둥글게 둥글게 이어진 지붕아래로 비잔틴 양식의 기둥들이



둘러 세워져 있다. 우선 사진에 담을 공리를 하면서 이쪽 저쪽을 기웃거린다. 수많은 여행객들 역시 자신이 보고 싶은 현장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 성당은 발칸반도 최대의 성당이다. 불가리아는 14세기부터 오스만투르크의 지배를 500년간 받았다. 16세기 오스만의 세력 약화를 틈타 민족해방 투쟁이 시작되었고, 제정러시아의 도움으로 1878년 오스만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 성당은 그때 적극 지원한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와 희생된 러시아 병사 20여 만 명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졌다. 내부의 벽화는 러시아, 불가리아, 구 체코슬로바키아의 화가들이 성경 내용을 그린 작품이며 성화들로 벽면과 천장에 채워졌다. 유독 눈에 부각되는 천장의 상들리에의 크기는 어마어마했으며 3개의 제단이 있었는데 중앙이 러시아, 왼쪽은 불가리아, 오른쪽은 슬라브 제국에 바치는 것이라 했다.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규모이며, 교회 안에 들어간 자재는 이탈리아산 대리석과 이집트의 석회질, 브라질의 마호가 사용되었다. 안내자는 지하 묘지에는 9세기부터 수집된 성화 컬렉션 이전 년의 세월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1960년 구 소련이 기증한 금으로 입혀져 태양과 같이 빛내고 있는 돔은 그 화려함이 극치에 달했다. 안내자는 이 성당은 소피아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성당이고, 자

신들의 딸아이 결혼식을 여기서 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교회 안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어, 단 한 장의 사진도 가지지 못했다. 요즈음 토요일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성당 앞에서 “공산주의로 돌아가자.”는 시위를 한다고 해, 나는 이곳 사람들의 시위현장을 구경하고 싶었지만 기회를 놓쳐 못내 서운했다. 내가 간 날은 여성악단이 연주를 하고 있었고, 여행객들은 빙 둘러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소피아에는 그리스도교의 종교건축이 많다. 중세시대 이후 그리스도교가 학문, 미술, 음악,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소피아의 성당, 수도원 등은 서구 유럽의 하늘을 찌를 듯 뾰족하게 각진 고딕양식이 아니고 둥글둥글한 모양이어서 우리 초가지붕 같아 보여 편안하고 정이 갔다.

원래 유적이 있는 구 시가지는 어느 도시든 그 면적이 그리 넓지 않아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걸어다닌다. 다행히도 소피아는 맑은 하늘과 눈부신 햇살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 도시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을 연속해서 설명하는데, 나는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들었다. 그 많은 성당의 설명을 듣다 보면 교회마다 건축된 시기와 그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이 다르며 건축양식도 교회 안 천장과 벽면도 다 다를 수가 없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500대 기업 CEO, 'SKY' 42.6%... 최대학맥은 고대 경영학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
500대 기업 CEO 이력 조사

2019년 국내 500대 기업 CEO 출신학교 현황 TOP20

대학	인원	비율	고교	인원	비율
서울대	131	23.20%	고려대 경영학	28	5.10%
고려대	64	11.30%	서울대 경영학	25	4.60%
연세대	46	8.10%	서울대 화학·화학공학	16	2.90%
성균관대	32	5.70%	연세대 경영학	15	2.80%
한양대	26	4.60%	서울대 경제학	14	2.60%
서강대	21	3.70%	서강대 경영학	9	1.70%
부산대	18	3.20%	고려대 법학	6	1.10%

출처 : CEO스코어(단위 : 명)
오너일가 포함, 겸직 제외
*500대기업 중 495 기업의 CEO 676명 대상(6월말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스카이(SKY)' 출신은 42.6%로 조사됐다. 경영학 전공자가 4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23.3%에 달했으며, 이 중 고려대 경영학과가 전체의 5.1%를 차지해 최대 학맥으로 꼽혔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3.2%(131명)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1.3%, 64명), 연세대(8.1%, 46명)가 2~3위를 차지했다. 전공별로는 경영학도가 23.4%(128명)로 전체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특히 고려대 경영학과가 5.1%(28명)로 서울대 경영학과(4.6%, 25명)를 따돌리며 최대 학맥에 꼽혔다.

CEO스코어데일리

2019학년도 1학기 경영대학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경영대 자체 42개 장학기금을 통해 161명 학생에게 장학금 수여

2019학년도 1학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장학증서 수여식이 5월 23일(목) 오후 7시 LG-POSCO경영관 안영일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엔 수여자 청평화시장 운영위원회 서광수 감사, 구자형(경영74) 수석부회장, 오성호(경영79) 사무국장, 현대자동차그룹 조운덕 상무, (주)KCC 심재국 총괄이사, 한상훈 차장, 김근창 장학회 장진영, KPMG삼정회계법인 최이현 상무, 심리안정교육센터 박세니 대표, 김언수 교수와 경영대학 장학생 1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재욱 학장의 인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김재욱 학장은 “장학증서 수여식은 기부자 분들과 재학생이 한자리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또 다시 사회와 모교에 환원해주시길 바라며, 먼 길을 해주신 기부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다음 순서로 장학증서 수여가 이어졌다. 이번 학기 경영대학에선 42개의 장학기금이 마련됐다. △KUBS Dream Scholarship(50명) △미래 장학금(24명) △신입생 면학 장학금(14명) △소암 장학금(12명) △남촌 장학금(11명) △KPMG삼정회계법인 고대교우회 장학금(10명) △AMP 86기 장학금(9명) △양영재단 장학금(6명) 등 모

두 161명(중복수혜 포함)이 장학혜택을 받았다.

수여가 모두 끝난 후 수여자와 장학생이 만찬과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사 이후 내빈 인사말, 학생 대표 감사 인사, 단체사진 촬영이 진행됐다. 경영대학 교우회 구자형 수석부회장은 “다시 먼 미래에 환원할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가면 고맙겠다”라는 당부를 전했다. 또한 KPMG 삼정회계법인 최이현 상무는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마련된 금액”이라며 “받으시는 학생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재승(경영12) 학생대표는 “여러 기부자님들의 고귀한 뜻을 모인 소중한 장학금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지탱하는 한 축이다”라며 “기부자님들의 장학금을 통해 저의 젊음과 패기가 제대로 발현될 기회를 얻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참석한 학생들과 수여자들이 함께 교가를 제창하고 단체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2019년도 회비 · 분담금 납입 집계 (2019. 1. 1 ~ 2019. 9. 22 기준)

* 오기(誤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교우회로 연락 바랍니다(02-922-3762)

<500만원>

57학번 이상일 자문위원
65학번 이학수 자문위원
허광수 부회장
67학번 허창수 명예회장

<300만원>

61학번 최오길 자문위원
66학번 박성훈 부회장
70학번 구본능 부회장
72학번 구자열 부회장
김 윤 부회장
허진수 부회장
73학번 구자용 부회장
74학번 승명호 부회장
75학번 안영일 부회장
이웅열 부회장
허경수 부회장
76학번 이 범 부회장
80학번 정몽규 부회장
89학번 정의선 부회장

<200만원>

70학번 나완배 명예회장

<100만원>

66학번 황병조 부회장
70학번 한대곤 부회장
72학번 양승은 부회장
최성진 부회장
황구연 부회장
73학번 김창수 부회장
정기련 부회장
74학번 강호갑 부회장
77학번 이재홍 부회장
79학번 김 정 부회장

장치평 부회장
81학번 박수근 감 사
82학번 여용동 부회장
90학번 최창규 부회장
송승민 부회장

<50만원>

53학번 이윤재 자문위원
55학번 유상옥 자문위원
59학번 석강봉 자문위원
60학번 박판제 자문위원
63학번 조원영 자문위원
64학번 강동식 상임이사
안덕수 상임이사
65학번 김호일 상임이사
66학번 박창덕 상임이사
67학번 신동언 상임이사
68학번 신준수 상임이사
71학번 이세형 상임이사
73학번 신준식 상임이사
75학번 최강호 상임이사
78학번 임재풍 상임이사
79학번 이동열 상임이사
이상현 상임이사
80학번 김용현 상임이사
김윤정 상임이사
86학번 강교진 상임이사
정서진 상임이사
88학번 전찬혁 상임이사
89학번 이동섭 상임이사

<30만원>

74학번 이흥기 상임이사
79학번 최수규 상임이사
추경호 상임이사
86학번 정경모 상임이사

<20만원>

63학번 이연송 자문위원
전현찬 상임이사
69학번 박지덕 상임이사
이재선 상임이사
이정주 상임이사
70학번 정석균 상임이사
71학번 이태희 상임이사
74학번 조군환 상임이사
조철래 상임이사
이규범 상임이사
최상태 상임이사
88학번 박진영 상임이사
92학번 윤선규 상임이사
조명훈 상임이사
97학번 김영일 상임이사

<10만원>

자문위원
58학번 유휘성
70학번 심재중

이사

53학번 이호용
54학번 김진배
55학번 김기인 박은양
58학번 함명돈
59학번 김규식
61학번 김길남
62학번 송준일 오무환
63학번 김일환 김형덕 이승칠 이영무
64학번 김용운 정제성 최종한 홍인표
65학번 이창윤
66학번 신현욱 임혁기
67학번 김용동
69학번 김진석 맹인재 신현웅
71학번 권관순 김기산 김동현 김영규
이철영 최윤도
72학번 강순석 강태준 문덕인 원종해

감/사/합/니/다

	이원창	한충열		
73학번	김순배	김영식	김용태	정봉채
	현기춘			
74학번	권순철	김경식	김양권	김희중
	손정윤	유대성	윤명상	임유순
	장항덕	조길래	조형용	진영삼
	최장현	표정호	한양우	홍석선
75학번	김석태	김수관	김우진	배영환
76학번	김덕만	배유현	서윤덕	이법호
77학번	이완재	임동하	홍 운	
78학번	경석현	류한호	박원현	박재호
	박주병	은민수	이영호	정동창
79학번	김석호	김용상	김정태	김진호
	민경섭			
80학번	이홍제	정백조		
81학번	박지수	사택진	유한수	이훈복
82학번	김성철	장태수	정교순	
84학번	김준호	배형근	이순규	
85학번	손순진	임 옥	정병욱	
86학번	김기영	오인환	정종갑	
96학번	주민근			

〈일반교우 3만원〉

48학번	황현수			
52학번	김영섭			
53학번	엄기정	조희석		
54학번	김동진	이종환	조해연	태호팔
55학번	권중탁	김강수	김정식	남치현
	윤성완	송재묵	이승재	이엽래
56학번	김지영	신명철	윤길림	이기홍
	이연상	조해균		
57학번	구인분	김문석	김성균	김재곤
	이병길			
58학번	박성업	사윤진	선환규	엄태성
	오덕환	이종철	천정호	홍종익
59학번	강해홍	김영식	김주환	노규채
	송창순	이광조	이기찬	이기홍
	이영희	이윤제	이응두	이중호
	이창용	한순영		
60학번	구자욱	김광평	김동선	김만용
	김영식	노수범	박정자	신준호
	정성진	정현구	조시연	최덕형
	하정일	한국연		

61학번	권천중	김소현	김윤장	김재태
	김택원	박광동	박무용	박성현
	박진자	박청자	박화신	안희민
	엄무성	오영희	왕규철	유기현
	윤영범	윤태희	이근창	이영자
	이원태	이재영	이재주	이학주
	전규수	조 경	조승자	
62학번	구자웅	김세영	김종순	배영일
	백호휘	유병하	이순영	이인영
	정우진	한상욱		
63학번	김시균	김지창	남 훈	박규환
	백선기	윤익순	정완영	한건수
64학번	고병선	고종효	김철주	성기남
	유명식	유재현	이경희	이항선
	이형택	조중래	허석도	현봉길
	홍현묵	민선용		
65학번	이경찬	조희원		
66학번	김명진	박민규	박용혁	염수열
	오창석	장철기	전재영	정동준
	정연석			
67학번	이계남	조용건	한기석	
68학번	황철수			
69학번	박영구	정영목		
70학번	박병천	제 철		
71학번	김기동	심동욱		
72학번	고재영	김성욱	김영만	김종현
	류병기	박동원	장석산	전중환
	정우성	황순기		

73학번	권정덕	김교웅	손대정	홍문순
74학번	김성화	김승길	박영식	박용운
	이윤우			
75학번	김우태	김호섭	김 훈	
77학번	김대철	이찬근		
78학번	김태완	박범주	유승식	
79학번	류병완	최계수	황보평	
80학번	김병조	김태현	이봉기	최윤식
81학번	김한근	남익우		
82학번	박영규	박준재	최준영	
83학번	곽병현	김민호	김보선	김용욱
	김윤호	김정욱		
84학번	강운구	강학수	김홍석	박광구
	서동찬	윤창섭	이창구	이해진
	최수곤			
85학번	김창수	박승하	박종국	신호섭

	윤상규	홍용준		
86학번	류재열	서동욱		
87학번	이종제			
88학번	류동엽	하종문		
89학번	김종민	서계원	정운근	
90학번	강승모	김형기	최문규	
91학번	이상수	임수현	조성일	홍승모
92학번	김지용	서동휘	이현경	
93학번	강준환	박진홍	윤성재	
94학번	서경덕	양호림	유승경	
95학번	이규열			
96학번	박도현	손희중	염종환	정태원
97학번	김길분			
98학번	이재등			
99학번	이동영			
02학번	박종현	박태현		
03학번	김시연	오병원	추창화	
04학번	김형태			
05학번	김승환	송현오	이근호	이현호
06학번	김현정	이상훈		
07학번	손상엽	양원모		
08학번	박재욱	신재호		
09학번	송명근	유연제	정석화	정해인
	한상영			
10학번	김강민	김명곤		
11학번	한은경			

〈학번별 분담금〉

62학번	500,000
64학번	500,000
66학번	500,000
67학번	500,000
69학번	1,000,000
70학번	1,000,000
71학번	1,000,000
72학번	1,000,000
73학번	1,000,000
74학번	1,000,000
75학번	1,000,000
77학번	1,000,000
78학번	1,000,000
79학번	1,000,000
80학번	1,000,000

감/사/합/니/다

81학번	1,000,000
82학번	1,000,000
83학번	1,000,000
84학번	1,000,000
86학번	1,000,000
87학번	1,000,000
89학번	1,000,000

〈평생회비 30만원〉

98학번	우종욱
09학번	이한솔
12학번	허종민

경영대 교우회 연회비 납입계좌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경영대 교우회는 재정건실화를 위한
특별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특별 발전 기금 납입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문의 : 02-922-3762



경영대 교우회비, 임원분담금 납부는 가장 큰 교우회 사랑입니다!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의 경영대와 경영대 교우회로 발전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연회비 목표 16,500,000원
달성 **53%** 실적 8,710,000원

2019

회비 및 분담금 중간집계

목표 20,000,000원 기별분담금
달성 **100%** 실적 20,000,000원

목표 200,000,000원 임원분담금
달성 **52%** 실적 104,900,000원

2019년 1월 1일 ~ 9월 22일 기준

총 목표 236,500,000원
달성 **56%**
실적 133,610,000원

교우님들의 협조와 임원님들의 큰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광고안내

〈호상〉광고 게재는 경영대 교우회 발전을 위한
우리 경영대 교우들만의 자랑스럽고 전통적인 애교심의 실천이며,
우리 경영대 전 교우들은 이를 감사히 생각하며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호상〉광고를 하게 될 경우, 우리 사회 각 계층에 포진하고 있는 21,000여 명의 오피니언 리더인
우리 경영대 출신 교우들이 여러분의 훌륭한 시장이 되며, 고객이 될 것입니다!!
〈호상〉광고는 교우님과 교우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인 것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기다립니다.

opinion leader
21,000

참여안내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Tel: 02-922-3762 Fax: 02-922-3763 E-mail: kubs@kubs.or.kr

▶ 광고비 입금처 하나은행 391-910009-80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